

알곡과 하나님 나라

(마 13:24-30)

제 9회



CABC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5.31

2025

선한 청지기 교회 (5월 31일)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타주 참석자들을 위한 Youtube Live 제공 9am-4:30pm



송병주 목사  
선한청지기교회

“출애굽기”



민종기 목사  
KCMUSA 이사장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이사야서”

ZOOM (6월 7일, 6월 14일)

9am-12pm

9am-12pm



김선익 목사  
포월튼비치  
한인제일장로교회

“예레미야서”



이상명 총장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바울서신의  
통전적 읽기”



CABC



[www.CABible.org](http://www.CABible.org)

문의 (310) 702-2688



제 9회

# CABC 2025 강의 일정표

## 5월 31일

|                  |               |
|------------------|---------------|
| 8:40am - 8:55am  | 찬양            |
| 9:00am - 12:00pm | 송병주 목사(출애굽기)  |
| 12:00pm - 1:30pm | 점심            |
| 1:30 pm - 4:30pm | 민종기 목사 (이사야서) |

## 6월 7일

|                  |               |
|------------------|---------------|
| 8:45am           | Zoom open     |
| 9:00am - 12:00pm | 김선익 목사(예레미야서) |

## 6월 14일

|                  |                      |
|------------------|----------------------|
| 8:45am           | Zoom open            |
| 9:00am - 12:00pm | 이상명 총장(바울서신의 통전적 읽기) |



# CABC 목차

- 02 CABC 소개
- 03 CABC를 시작하며
- 04 CABC가 걸어온 길
- 05 CABC 기도제목
- 06 출애굽기
- 35 이사야와 국제정치
- 60 어떻게 예레미야서를 읽을 것인가?
- 78 바울서신의 통전적 읽기
- 89 CABC 2025 섬기는 사람들

# CABC 소개

CABC는 미국 뉴욕 Upstate 6개도시(Buffalo, Ithaca, Rochester, Binghamton, Syracuse, Albany)에 있는 한인 청년들이 말씀을 통한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2007년부터 시작된 NYBC (New York Bible Conference)의 비전과 커리큘럼을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11 년에 시작된 KYBC (Korea Young People Bible Conference, [www.kybc.info](http://www.kybc.info))도 NYBC가 모체입니다.

CABC의 목적은 California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영적 부흥과 지역교회의 연합을 도모하고 참 복음을 회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되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각 지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어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나아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경 전체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어져갑니다. 창세기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구속사적 관점에 의한 역사적 흐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person)과 구속사역,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러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이어가는 성경 전체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California의 부흥을 생각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오래 전부터 기도하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어 주님의 방법으로 연합케 하셔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CABC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크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하나님 크기의 일이 될 것입니다.

## 목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선포를 통해 California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영적 각성, 교회의 회복과 연합, 지역 교회의 부흥을 도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복음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 이 시대를 위한 부흥의 전도자, 진정한 예배자와 예수의 제자들, 기도의 중보자를 양성하는 것(대하 30)

## 핵심 가치

1. 성경 중심(눅 24:32)
2. 예수 그리스도 중심(요 5:39)
3. 교회 중심(계 2:7)



# CABC 를 시작하며

## ‘알곡과 하나님 나라’ (마 13:24-30)

변화와 혼란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인생의 길목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마주합니다.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오늘도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번 말씀사경회는 ‘알곡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 비추어 점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고, 외형적 신앙과 껍데기뿐인 열심으로 채워지기 쉬운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발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알곡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알곡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알곡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인 양 흘러 다니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도 분별력을 잃은 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쪽정이일 뿐이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말씀사경회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어느 순간 저절로 만들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의 연속에서 열매 맺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말씀사경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옥토가 되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진실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알곡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이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CABC가 걸어온 길

|                                                                                                                                                           |                                                                                                                                               |
|-----------------------------------------------------------------------------------------------------------------------------------------------------------|-----------------------------------------------------------------------------------------------------------------------------------------------|
| <p><b>2016년</b> 주제: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요 6:68)</p> <p><b>1회 CABC</b> 고승희 목사: 요한복음<br/>고태형 목사: 야고보서와 유다서<br/>김선익 목사: 레위기<br/>이상명 총장: 누가복음<br/>지용주 목사: 사사기</p> | <p><b>2020년</b> 주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11:25)</p> <p><b>5회 CABC</b> 박광철 목사: 히브리서<br/>(Online) 고승희 목사: 신명기</p>                                |
| <p><b>2017년</b> 주제: 빛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요 8:12)</p> <p><b>2회 CABC</b> 권태산 목사: 로마서<br/>김선익 목사: 욥기서<br/>남종성 목사: 데살로니가전, 후서<br/>박준서 총장: 에스겔서<br/>송병주 목사: 요나서</p> | <p><b>2021년</b> 주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14:6)</p> <p><b>6회 CABC</b> 김인철 목사: 빌립보서<br/>(Online) 김준식 목사: 이사야서<br/>이상명 총장: 마태복음</p>            |
| <p><b>2018년</b> 주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요 10:9)</p> <p><b>3회 CABC</b> 고승희 목사: 호세아서<br/>김한요 목사: 여호수아서<br/>민종기 목사: 아모스서<br/>박성근 목사: 에베소서<br/>이상명 총장: 갈라디아서</p>   | <p><b>2022년</b> 주제: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요15:5)</p> <p><b>7회 CABC</b> 지용주 목사: 출애굽기<br/>고승희 목사: 스가랴서<br/>김성환 목사: 마가복음</p>                           |
| <p><b>2019년</b> 주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요 10:11)</p> <p><b>4회 CABC</b> 권혁빈 목사: 요한계시록<br/>김신일 목사: 12 소선지서<br/>김성환 목사: 창세기<br/>김우준 목사: 요한일서<br/>백정우 목사: 룻기</p>   | <p><b>2024년</b> 주제: 씨 뿌리는 자와 하나님 나라 (마13:3-9)</p> <p><b>8회 CABC</b> 1차 고승희 목사: 아가서<br/>김선익 목사: 전도서<br/>2차 고창현 목사: 욥기서<br/>고현종 목사: 에베소서</p>    |
|                                                                                                                                                           | <p><b>2025년</b> 주제: 알곡과 하나님 나라 (마13:24-30)</p> <p><b>9회 CABC</b> 송병주 목사: 출애굽기<br/>민종기 목사: 이사야서<br/>김선익 목사: 예레미야서<br/>이상명 총장: 바울서신의 통전적 읽기</p> |

# CABC 기도제목

## 1. 2025 CABC 말씀사경회를 위해

- 말씀 사경회를 통해 개인과 가정, 교회, 지역사회를 깨우는 영적 각성과 부흥의 전환점이 되어 참된 예배자, 중보자,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참석자의 마음 밭에 깊이 뿌리내리고, 알곡으로 자라 열매 맺는 복된 '생명의 역사'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 2.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

(송병주 목사님, 민종기 목사님, 김선익 목사님, 이상명 총장님)

-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전 과정 속에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고, 강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고,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3. 참석자들을 위해

-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마음과 시간을 기꺼이 구별하여 드러지는 시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채워지도록 기도합니다.
- 말씀 사경회 가운데 뿌려지는 말씀이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나라의 모든 자리에서 알곡처럼 열매 맺고, 구원과 사랑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모든 참석자들의 건강, 안전, 연합으로 기쁜 말씀 잔치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4. CABC 섬기는 이들을 위해

- 섬김의 자리에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증인으로, 예배자의 삶을 기도합니다.
- 흔들림 없는 깊은 믿음으로 바른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 출애굽기



송병주 목사  
선한청지기교회

## 출애굽기 개요 1

### 출애굽기 1-18장: 이집트 탈출

#### 〈서론: 출애굽기 전반부 이해〉

##### A. 출애굽기의 저자와 기록목적

1. 저자
2. 기록목적

##### B. 출애굽기 전반부(1-18장)의 내용구별

1. 1-4장 /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비되다.
  - a. 출애굽의 배경과 바로의 악
  - b. 모세의 준비와 소명 - 타는 떨기 나무 아래
  - c. 출애굽의 목적
  - d.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2. 5-15장 /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를 압도하다.
  - a. 바로의 방해와 하나님의 행동
  - b. 10가지 재앙과 완악한 바로
  - c. 유월절의 역사
  - d. 홍해 바다에서 승리
3. 16-18장 /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가다.
  - a. 이스라엘의 방해와 원망
  - b. 음식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완악한 이스라엘

##### C. 중요한 사건과 정리

1. 전반부
  - a.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과 출애굽의 배경
  - b. 모세를 부르심

- c.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 d. 10가지 재앙
- e. 유월절과 오순절

## 2. 후반부

- a. 시내산 언약(십계명)의 의미
- b. 성막의 설계, 건축, 완성

# 〈본론: 중요사건의 해석학적 의미〉

## A.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과 출애굽 시기

### 1. 애굽 거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창세기와 포괄적으로 연결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애굽 거주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생각을 할 오해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애굽 생활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 굶어 죽어가기 직전에 그들은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요셉의 덕택으로 그들은 애굽의 좋은 장소를 찾아서 번성을 누릴 수 있었다. 문제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버린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지 애굽 거주자체를 징계내지는 애초에 잘못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 2. 초창기의 축복된 생활

출 1:7은 그 이후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생활을 가늠케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 하여 온 땅(고센)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비옥한 땅을 얻은데 다가 왕실의 지원과 후원 아래에서 매우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창1:28]과 같은 맥락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태초의 아담의 복을 이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애굽 생활 자체는 그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였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창 1:28의 복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복을 상실하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과 자신의 내적 확신이 약해서 이 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뱀 곧 바로의 강압과 이스라엘의 내적 확신의 부재(하나님의 이름도 잊고 예배를 잃어버림)로 이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 3. 복의 상실과 그 원인

먼저 살펴 볼 것은 외적 요인으로서 창세기의 뱀과 같은 존재, 뱀의 후손 같은 바로왕의 등장 때문이다. 출 1:8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고난의 생활이 시작된다. 여기서 애매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누구냐는 점이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점은 엉뚱하다. 이 왕은 어떤 왕일까? 3가지 가능성이 있다.

- ① 애굽 역사시간에 졸았거나 F맞은 왕
- ② 요셉은 아는데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이 식량 위기를 넘기고 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 곧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왕
- ③ 요셉과 역사적 관계가 단절된 새로운 왕조의 출현

즉, 애굽의 왕족이 요셉을 모를 수는 없다. 이것은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모르는 왕이라 함은 새로운 왕조의 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대 역사가들은 요셉이 애굽의 치리자로 있던 시대를 히소스 왕조로 보고 있다. 이 왕조는 본토 애굽 정권이 아니라 아시아계에서 이주해온 왕족으로서 애굽을 정벌하고 왕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들은 아시아 계로서 애굽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관대했던 것도 같은 아시아계라는 동질감의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굽인들의 저항은 계속 있었고 드디어 순수 애굽왕조가 일어나 히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자신들의 왕조를 세우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인들을 보면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비옥한 옥토에서 자리잡고 경제적인 부요를 누릴 뿐 아니라 많은 인구가 있다는 사실, 더구나 전 왕조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동일한 아시아계라는 사실은 더욱 애굽 왕조입장에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애굽에서 밀려난 아시아계의 히소스 왕조가 재 공격해 올 경우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들의 편이 되어 싸울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었다. 결과 그들은 요셉을 모르며 뿐 만 아니라 반란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한 민족 공동체를 고통스럽게하는 인종 청소를 자행했다.

이 증거는 출 1:10에서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18왕조인 애굽의 히소스 왕조 치하에 있다고 애굽 본토 출신인 19왕조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인해 왕조가 바뀐 관계로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로 복을 상실한 요인은 바로와 같은 외부요인이 아니라, 내적 확신이 약해진 이스라엘의 내부 요인 때문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뱀 때문에 복을 잃었지만, 이런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 확신의 부재로 인해 복을 잃었던 것과 같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이들이 인종청소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의 뒤에는 영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그것은 겔 20:8인데, 그들이 애굽인들의 신앙 곧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겔20:8]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일은 외부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착하게 사는데 애굽 왕이 핍박을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다가 축복의 포도주에 빠져 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할 지경에 다다르고 말았다. 결과 그들은 성도의 고난이 아니라 노예적 삶의 고통을 겪고 말았다.

하지만, 아담이 망치고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며 여자의 후손의 역사를 파괴했지만, 다시 셋을 태어나게 하여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이 역사는 그대로 이어진다. 셋과 아브라함처럼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을 이어가게 할, 사람이 준비된다.

## B.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하신 목적

### 1.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새로운 전환점을 위해 하나님은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한다. 전환점의 출발이다. 모세의 일대기는 40년을 기준으로 3회에 걸친 대 전환이 일어난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인데, 그 삶은 모세에게 배움의 기회와 왕자로서의 리더십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출생과 민족문제를 알게 되었고 어설픈 소영웅주의적 행동으로 스스로 도망자로 만들어 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철저한 목자로서 데릴사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위 범인으로서 40년을 보낸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기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던 인생을 자기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감하는 시기로 보내게 된다. 마지막 황제 부의가 경험해야 했을 엄청난 문화충격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변했을지를 생각해보면 한 개인의 일생과 운명의 기구함을 보게 된다.

이런 극단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여호와와 모세를 부른다. 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타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면서 그를 당신의 지도자로 부르신다. 영광과 좌절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교육시켜오셨고 그 때가 차매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불타지 않고 타오르는 떨기나무이다. 자신의 힘으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던 모세였지만, 스스로 힘으로 불꽃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해방시키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모세에게 주님은 특별할 것이 전혀없는 떨기나무를 매개로 삼았다. 사막에서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모세가 정이품 소나무 같고 레드우드 같은 40대가 아니라 사막의 떨기 나무 같은 80세에 불타오르게 하신다.**

이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여준 것이다. 비록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 할 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꺼지지 않는 능력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도구와 재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을 신뢰하는 일임을 보여준다.

왜 이렇게 사람을 준비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출2:23-25] “23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서 구원과 출애굽이 시작되었다. 소망은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있다.**

## 2. 출애굽의 목적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출애굽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이다. 4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우리도 잊어버린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신다.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 고통 받는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주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참된 여자의 후손의 복을 이어갈 사람들을 세우고 준비하는 비전을 이어 가신다. **셋을 일으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나게 한 것처럼, 그래서 제단이 쌓아지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가 드러진 것처럼, 그 역사를 이어가려 하신다.**



아브라함이란 개인을 제국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국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신다.

[출3: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실제 나중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한다. [출5: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복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은 복을 주신다. [창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

[출19:5-6]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스라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신 것을 본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토tem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고 민족을 선택하신 구원자시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살리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였다. 모든 민족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 C. 야훼의 이름과 그 의미

여호와와 이름은 “스스로 있는자”라고 우리는 잘 알고있다. 우리가 영어로 “I am that I am”이라고 하여 잘 알고있는 본문이다. 그러나 이 “I am that I am”은 잘못된 번역이라 할 수는 없지만, 모호하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가 더강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존재 양식이나 상태를 드러내는 말로 볼수는 없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자(不動子)가 아니다. 그저 높은 산에 앉아서 이슬과 고사리만 먹고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해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학적 사색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는 오류를 범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론적 이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의미를 실천적이고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경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미완료 형이다. 그리고 사역형이다. 즉, “이다. 되었다”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되게하고 되어서 하겠다” 그러므로 이것은 “I am that I will be 혹은 I am what I will be”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능대와의 춤을”이라는 이름처럼, 명료화된 단어가 아니라 서술형의 이름이다. 이것은 행동적인 이름이라는 것이다. 즉 행동을 통해서 이름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의미다.

**여호와와 이름과 관련되어서 출애굽기는 진술상 독특한 패턴이 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표현이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리라”이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독특한 구조를 이룬다.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리라”는 진술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적인 행동이 있다.

즉, 야훼는 자신의 역사적 행동을 의지적으로 행함으로서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낸다. 자기 의지를 가진 행동이 일어남으로 “야훼됨”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제한되고, 완료되고 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미완료형이다.

곧 어제든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다. 여상(如常)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퇴각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깊숙이 개입하시고 행동하심으로 그의 야훼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학적 사색의 결과 하나님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다.

출14:4 하반절부터 우리는 강박한 바로를 본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가 야훼인줄 알게 하리라”고 하신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고 하신다. “여호와가 누구 관대?”하던 바로를 향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와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겠다고 한다.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때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는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구원이 선포된다. 그것은 4:13-14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즉 전쟁을 하신다.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전쟁을 보라고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곧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다. 즉 구원은 심리학적 종교현상이 아니라 삶의 실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출 14:17-18에서 군대와 여호와께서 부딪히신다. “이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을 때 내가 여호와인줄 알리라”고 하신다. 애굽인들이 내가 여호와인줄 “알게”될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애굽과 싸울 때, 그들의 말과 병거를 쳐부술 때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될 것이라고 한다. 바로 **뜨거운 맛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지식이다.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고 시체가 즐비한 곳 거기에서 15장부터 이스라엘의 승리의 노래가 시작된다. 비로소 이스라엘도 여호와와 야훼 되심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당신이 누구이십니까?”라는 질문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관대?”라는 질문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여호와는 감탄사고 탄성이며 그래서 노래와 찬양이 된다.

이처럼 여호와와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별명의 출발이 된다. 여호와 라파, 닛시, 이레...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증으로 고백한 별명이다. “나에게 여호와는 이레였다.”는 만남의 의미를 담고 경험을 담는다.

“오바마 대통령 아세요?”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네 압니다” 할 것이다. 그러면 “근데, 정말 아세요?” 그러면 “모르죠”라고 한다. 전자와 후자가 뭐가 다른가요? 객관적 사실을 아느냐와 주관적 관계속에서 아느냐의 차이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야훼라는 신명은 전자의 의미로도 쓸 수 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후자다.

우리가 친구를 알기 위해서 친구에 관한 시와 논문을 읽어보고 국어사전과 백과사전을 뒤져서 친구의 어원과 역사적 의미를 살피며 각 나라와 문화에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를 연구해서 친구가 무엇인지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이 놀고, 먹고, 싸우고, 이야기 하면서 친구가 된다.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분석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단어상 성적인 경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표현과 어원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체험된 지식이라는 점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의 행동하심을 전제로 시작된다. 그의 행동하심과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야훼”라는 이름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야훼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를 통해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은 “여호와와 이름”의 의미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험했다. 이 여호와와 이름은 주변 나라들에게도 알려져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공격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일에도 두가지 방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아도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따뜻한 맛과 뜨거운 맛의 차이라고 본다.

## D. 열가지 재앙과 의미

열가지 재앙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넘어서었다.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술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지켜줄 수 없는 신들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온 인생들에게 세계관을 바꾸게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근간으로 하는 제국의 민낯과 본질을 폭로하는 일이었다.

1. 열가지 재앙의 종류와 의미: 출 8:20-9:26

2. 열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목적

첫째, 430년 지배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뒤집기 위해서였다. **이집트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집트의 신앙재해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신들의 종류가 유난히 많았다. “신들이 많다는 것은 지켜주는 힘이 크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게 드러나고 말았다. 그래서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재앙이기도 했지만, 종교를 향한 재앙이었다.

첫번째 메시지는 애굽이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던 신들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것처럼 두려워하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각 시키고자 했다. 세뇌 당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과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 영적인 혁명이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육적으로만 노예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노예였다. 육적인 노예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노예 해방이었다. **우상에게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노예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회복하는게 목적이었다.** 10가지 재앙은 그냥 신기한 신적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그들의 의식구조를 지배했던 세계관을 뒤집는 심판이었다.

둘째 메시지는 유일신앙 사상이다. 지금 이 열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아예 신 자체가 아니었다는 개념이다. 10가지 재앙은 신들의 패배를 스포츠처럼 중계하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이 아니었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회적 폭로를 하고 있다.

존재하는 다른 신들과 싸워서 이겼기에 한분만 섬기겠다면 그건 단일신론이다. 하지만,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기에 도울 수 없다는 것을 폭로하였기에 그것은 유일신론이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본질임을 알려 주는게 두번째 메시지다.

셋째로 제국이 아닌 노예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고대 종교와 권력은 항상 동반자 관계였다. 종교는 권력을 신격화한다. 왕을

현존한 신으로 묘사해서 왕에 대한 거역은 신에 대한 거역이다. 그래서 모든 제국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지 않았다. 부족국가가 고대왕국으로 발전하는데 종교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신라도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받아들이며 왕권이 확립된다. 고려를 세울 때 조선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런 고대사회에 권력과 싸우는 여호와가 나타났다. 노예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제국과 싸웠다. 세상에 이런 신은 처음이다. 10가지 재앙은 제국을 보호하는 신들과 바로를 지키는 신들과 전투였다. 노예들을 보호하고 노예를 지키는 신이 제국의 신들을 집단적으로 부숴버렸다.

애굽의 종교관으로 볼 때, 약자들의 신은 약한 신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 가장 강한 제국과 신들을 무너 뜨리고 약자들의 편이 되었다. 이건 당시 종교관으로 볼 때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

## E. 유월절과 오순절을 통한 구원의 역사

### 1. 유월절의 시작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유월절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온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일어나게 된 열가지 재앙중에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장자의 생명을 취하는 일이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는 기념일을 지키게 되었다.

유월절은 영어로 Pass Over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죽음의 사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건너간 날, 지나간 날이라고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든채,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구워먹고 쓴 나물을 먹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땅에서 얼마나 급하게 나왔고 긴박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기념하며 대속적 죽음을 통해 구원이 임하였음을 상징하는 날이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이 시작되는 날이고 해방의 날이지만, 이날의 분위기는 대체로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이며 과거의 고통과 아픈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6.25가 되어서 상기하자 육이오 분위기처럼 강냉이 죽먹으며 그날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런 날로서 Historical Memorial Day로서 의미를 가지는 날이다.

### 2. 유월절이 가지는 신약적인 의미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은 어린양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향한 대속적 죽음을 경험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날도 안식일 하루전 곧 특별히 유월절로서 안식일 하루전에 죽으셨던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사야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묘사할때도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함으로 그가 대속적 죽음과 고난의 길을 갈 것을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을 죄에서 살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역에 있어서 그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다. 인간의 선행과 공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의 행동인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무능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인지... 스스로 자신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철저히 무능했던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확신과 기쁨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는데 강요되기 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시기 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날로서 나 밖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역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날로서 비장한 감사의 날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 3. 오순절의 시작

이런 중에 출애굽기는 새로운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소위 칠칠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은 우리 식으로 보자면 추석과 비슷하고 미국식으로 보자면, 추수 감사절에 가깝다. 그래서 수확의 첫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다.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시작된 절기로서 이 날은 첫 소산을 두고 축제를 열었던 절기였다. 풍성한 먹거리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춤추며 즐기던 절기가 오순절이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분위기는 축제와 감사의 제전이었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즐기는 날로서 의미를 가진다.

### 4. 오순절이 가진 신약적인 의미

그러므로 오순절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재하고 난 이후 큰 확신 가운데 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확신 가운데 있지 못했던 제자들이 큰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았다.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신약에 성령께서 임하므로 그 구원이 인치심이 되고 확신과 결단으로 믿음의 축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과 오순절은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의 주관적인 성취의 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다분히 유월절은 역사적인 사건중심이다. 즉 나는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은 적이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공동체적 의식을 통해 객관화 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그런데 오순절은 좀 그 의미가 다르다. 오순절은 이 객관적인 유월절 사건의 주관화이며 자기 고백화로서 축제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가진다. 즉 유월절은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인식하는 차원이었다면 오순절은 그것을 자기화 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땅의 초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구원의 기쁨을 말하며 춤추며 놀았던 것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누림이고 즐거움이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무한정 뛰어노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들은 이 오순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를 즐거워한 것이다. 이 오순절로 말미암아 이들은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자기들의 일인 것을 알았던 것이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양식을 기대하는지를 볼 수 있다. 애석하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신앙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본다. 나 밖에서 나도 모르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속적으로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서 주관적으로 체험되고 누리며 기쁨의 축제를 벌리는 주관적인 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든 개인은 오순절의 체험된 고백이 있어야 한다.

## F. 홍해 바다로 가다

### 1. 누가 길잡이를 했나?

늘 모세나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성경 출애굽기를 볼 때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다. “왜 이집트 나가려면, 멀쩡한 길 놔두고 그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바닷가 앞으로 그렇게 대책없이 갔는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다. “모세가 바보 아냐?”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이 시작부터 길을 잘못 잡아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로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이 40년이 걸리게 되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길이다. 정탐꾼들이

다녀올 때에도 그렇게 오래 걸린 여정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린걸까? 그것은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 일어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원래부터 하나님은 빠른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건너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바닷가 길로 가도록 인도했다.**

출 13:17-18을 보면, “17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길을 잘못 찾아서 홍해 앞에 가게 된 것이 아니다. 빠른 길 거부하고, 건너 방법이 없는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다. **이건 지금 최단거리 포기하고 최장거리로 인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최단거리 포기하고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말이다. KTX 가는 길 막으시고, 완행열차 탄게 아니라, 끊어진 철길로 보냈다는 말이다.**

## 2. 왜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여기서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모르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하고 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길이 없다는 것,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처음부터 알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홍해로 이끌고 간 모세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미 말씀을 다 했다고 보는게 무방하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13:17에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에 포인트가 있다.

블레셋 광야길이 아닌 홍해로 인도하신 건, “**바로의 추격대와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와 전쟁이 되게 하겠다**”는 의미다. “너희의 전쟁이 되면 두려움으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니, 나의 전쟁이 되게 하여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는 의미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야 한다는 것은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은 할례와 어원이 같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그렇다면 길 없는 곳에서 “길은 무엇인가?”, “어디에 길이 있는가?” 사람들은 what 과 where 을 질문한다. 길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길은 누구인가?” 길없는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서 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왜 최단거리를 두고 최장 거리가 아니라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 길 없는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서 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끊어진 다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걸까?

그것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는다. 그리고 “이건 너희의 전쟁이 아니구나. 이건 나의 전쟁이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는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분을 만나게 하는 여정이다.

## 〈맺으며〉

- A. 광야에서 오순절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다시 불만하기 시작한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 출애굽 이전에도 늘 원망하고 불만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한다. 바로에게는 찌소리 못하며 모세에게 큰소리 치고, 우상에게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에게는 부들부들 떨며 대드는 이스라엘이다.
- B.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음을 본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본다.
- C. 우상과 다신론에 세뇌되었던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바꾸는 일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이어져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문제였음을 다시금 발견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으며 제사가 회복됨으로 구속사의 전환점이 일어난 것처럼, 민족 공동체로서 그 전환점을 이루는 예배의 회복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다.
- D. 여기서 출애굽기의 최종 목적을 본다. 만약 탈출 애굽이 목적이었다면 출애굽기는 15장에서 찬양과 함께 마치면 된다. 이집트 왕자도 거기서 끝이 난다. 그런데, 왜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이어가는 걸까? 이것은 몸 동아리 출애굽이 다가 아닌 것을 보여준다.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여호와께는 출애굽의 여정의 1막만 끝난 것으로 보셨다. 출애굽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 질지 2번째 강의에서 살펴 보겠다.

## 서론: 출애굽기 후반부 이해

### A. 출애굽기 후반부(19-40 장)의 단락 구별 및 개요

#### 1. 후반부 들어가기 전에 이전 맥락을 다시 살펴 봅시다.

첫째. 19 장의 후반부는 홍해바다 사건과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엄청난 기적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전과 달라진 변화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 1) 출 15:22/ 마실 물로 인해 마라의 원망과 엘름의 축복이 대조된다.
- 2) 출 16 장 / 먹거리의 원망과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이 대조된다.
- 3) 출 17:1-7 / 마실 물로 인해 맛사와 므리바의 원망과 반석의 생명수가 대조된다.

둘째. 세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원망과 여호와와의 신실하심이 대립을 이룬다음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의 강력한 중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출 17:8-16)

셋째. 모세는 큰 전쟁을 치룬 다음, 여전히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송사와 재판을 바로 잡기 위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장인 이드로를 통해 시스템을 갖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 18:1-18:27)

정리하자면, 출애굽 이후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후반부에 일어나게 될 복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세가지가 그대로 후반부에 일어나게 될 일을 위한 복선이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후반부 역시 완악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타날 것이고, 이들을 향한 여호와와의 은혜와 용서와 신실하심은 여전히 나타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기는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아말렉에게 이기게 하심처럼 극복해 갈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온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법률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분명히 세우실 것이 예상됩니다.

#### 2. 시내산 강림과 율법의 수여(19-24 장)

- 1) 19 장 / 시내산 강림



- 2) 20 장-23 장 / 십계명과 제사와 사회 정의에 관한 52 개 법규 선포
- 3) 출 24:1-11 / 이스라엘 백성의 동의와 헌신 서약

3. 모세의 특별한 40 일 여정과 성막 예배를 위한 설계도 수여 (24-31 장)
  - 1) 출 24:12-18 / 모세를 초대한 여호와, 특별한 40 일 여정
  - 2) 25 장-31 장 /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설계도 전달), 십계명 돌판 전달
4. 이스라엘의 의심의 40 일 여정과 금송아지 숭배를 통한 언약의 파괴 (32-34 장)
  - 1) 32 장 / 금송아지 숭배,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부서지다.
  - 2) 33 장 /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 약속의 땅으로 가라. 현현하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시다.
  - 3) 34 장 / 다시 계명을 돌판에 주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다.
5. 모세가 성막을 짓다.(35 장-40 장)
  - 1) 35 장 / 안식일을 재정립하고 재료와 사람을 세우다.(브살렐 오홀리압)
  - 2) 36 장-38 장 / 성막의 기구를 완성하다.
  - 3) 39 장 / 제사장의 옷을 완성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의 역사를 완성하다.
  - 4) 40 장 / 성막 봉헌식을 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6. 전체적 정리

첫째. 출애굽 이후(15 장-18 장)에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은 완악하고 패역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차원을 넘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드는 단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패망을 자초합니다. 아말렉과 같은 외부 요인이 위기가 아니라, 내부 요인이 더 무서운 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출애굽 이후(15 장-18 장)에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완악한 이스라엘에 비해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신실하십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에게 묵묵히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다시 계명을 돌판에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막을 세우게 하시며 여전히 신실합니다.

셋째. 출애굽 이후(15 장-18 장)에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그의 중보기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멸의 위기 앞에서 한 사람의 중보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넷째. 출애굽 이후(15 장-18 장)에 보았던 것처럼 모세의 지도력을 세우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합니다. 방백을 세워 조직을 재구성하여 재판하게 하며 백성을 통치하게 한 것처럼 성막을 세우는 책임자와 리더들을 세워 조직을 구성하여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실현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원 받은 백성을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길은 예배와 말씀인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 B. 후반부 중요 사건

1. 시내산 언약(십계명)
2. 성막의 설계, 건축, 완성

## 본론: 중요 사건의 해석학적 의미

### <첫째. 시내산 언약(십계명): 20-24 장>

#### A. 시내산 언약이 창세기와 갖는 연속성

출 19:5-6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1. 창세기의 아브라함 언약과 비교해보자.
  - 1) [창 12:2-3]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 2) [창 17: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첫째.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주신 언약이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 갱신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개인과 가정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은 이제 한 나라를 통해 모든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갱신됩니다. 이 언약은 갑자기 튀어나온 배타적 민족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둘째. 언약은 근본적으로 구원 받는 수단으로서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 받음에 기초한 구원의 확장을 위해 맺어 집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나 구원의 선결요건이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즉, 은혜로 구원 받은 이후 구원의 확장을 위한 사명(여러 민족의 아버지, 제사장 나라)과 관련되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택의 언약은 선택 받은 백성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소명으로서 선택이었습니다.

## 2. 율법 준수의 본질 - 반쪽자리를 만들지 말라.

율법 준수는 먼저,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는 배타적인 특별한 관계 형성을 출발합니다.

하지만, 율법 준수의 본질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율법 준수의 본질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즉, 이것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는 직분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율법 준수의 목적으로 첫째의 배타적 특별한 관계 형성만 안다면, 소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 준수를 하라고 한 두번째 목적인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적 사명 또한 율법 준수의 본질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을 오해했습니다. 반쪽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과 반하는 행동이 아니라, 완성하는 행동이며 반쪽자리가 될 율법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복음은 생똥맞은 새로운 출현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과 배제로 간과하고 무시하고 폐기해 왔던 상실된 율법의 본질 회복이며 완성입니다.

## B. 10 계명 기본 이해

### 1. 유대인들과 차이

기독교에서는 1 계명을 출 20:3 부터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리고 2 계명을 4-5 절로 봅니다.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래서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분리해서 계명을 2 개로 구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출 20:2 부터 1 계명으로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독교는 서언으로 보는데 이것을 1 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출 20:3-5, 곧 기독교에서 1 계명과 2 계명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을 하나로 묶어 제 2 계명으로 봅니다. 십계명의 1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인식으로 접근한 유대인의 방식이 독특합니다.

## 2. 기본 구조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의 필요

일반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1-4 계명: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 b. 5-10 계명: 사람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기본적인 구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1-4 계명은 영적인 측면과 종교적 측면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5-10 계명은 사회적이고 윤리적 측면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은 동의 합니다.

다만 추가하고 싶은 것은 과연 십계명이 신앙과 윤리, 종교와 사회를 단순하게 분리시켜 놓았다고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1-4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는 일이지만, 이것은 결국 사람과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즉,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지킨 하늘”**입니다. 또한 5-10 계명은 사람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일이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즉, **“하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킨 사람”**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지만,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본질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C.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해

### 1.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입장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에 대해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을 예수님은 바로 잡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 계명을 대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둘째,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해했는지, 셋째 예수님은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 2. 형식의 종교가 아닌 마음의 종교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심비에 새긴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복잡하고 많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단순화 합니다. 2 가지로 축약하고, 마지막엔 1 가지로 줄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 3. 십계명을 두마디로, 한마디로 하면...

#### 1)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막 12:29-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 2) 이웃 사랑

##### a. 예수님의 메시지

요 13:34-35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 b. 바울의 메시지

롬 13: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 c. 야고보의 메시지

약 2:8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 4. 정리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셨던 예수님은 이웃 사랑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새계명으로 설명합니다. **이웃 사랑 보다는 “하나님 사랑”을 더 강조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웃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그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웃 사랑이 결국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런 경향은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웃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로 설명합니다.

## D. 계시와 말씀으로서 법이 갖는 정치공학적 의미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당대의 일반적인 법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지금이야 국민의 대표가 법을 만들지만, 고대의 법은 왕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도 당연히 왕이 만든 법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만든 의도는 백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왕과 권력자의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지,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법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왕은 항상 초법적 존재였고, 지도자들은 법 위에 존재했습니다. 법의 창조자로서 법을 지키기 보다는 만들고 고치며 집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심으로 인해 왕들조차 법 아래에 존재해야 했습니다. 십계명 때문에 왕들은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할 수도 없었고, 살인해서도 안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해버리면 왕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 구약의 역사를 봐도 어떤가요? 감히 선지자들이 나와서 왕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십계명은 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백성과 선지자를 위한 법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새바를 범했을 때에도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해 왕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하나 빼앗지 못해서 위증과 살인교사를 하다가 결국 선지자에게 “개들이 네 피를 핏으리라”는 예언앞에 서야했습니다. 사울왕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다른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아래에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법을 들고와서 “야야하십시오” 하던 일이 고대 왕국시대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십계명이 BC 1400 년도에 만들어졌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Samuel Rutherford 가 <Lex, Rex> 곧 영어로는 The Law is King (법이 왕이다)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책을 통해 왕도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Bloody Mary 여왕이 법을 어기면 하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권으로부터 교회가 독립을 시작한 것이 AD 1664 년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법정신은 3 천년을 앞섰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만든 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정도전이 AD 1394 년에 <경국대전>을 지으면서 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전하~ 아니 되웁니다.” 였습니다. 항상 왕의 궁궐 앞에는 연좌농성하고 법을 지키라는 요구사항이 전달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개념이 도입된 것이 조선시대였는데, 구약시대 BC 1400 년대에 이런 법이 존재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이것이 고대에 존재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지금도 법 위에 군림하려는 지도자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AD 2025 년 사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BC 1400 년대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십계명은 시골에서 뽕나무 키우다가 온 촌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면 감히 왕에게 회개와 심판을 선언할 수 있게 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왕이 만든 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도 피해갈 수 없는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E. 십계명과 52 개 추가 법규의 구별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에게 수여 받았다는 점에서 십계명과 52 개 법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별하여 수여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차이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별할 것이 있다면 십계명은 세월이 흘러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할 **통전적 언약**입니다. 불가역적이고 변개치 않을 통전적 언약입니다. 하지만, 52 법규는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맞추어진 것으로 **시대성을 가진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른 재해석이 필요하고 변혁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십계명은 해석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계명도 정확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문화적 시대적 배경 이해에 기초하여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의 현실을 넘어서 반드시 YES or NO 로 흔들리지 않아야 할 원리로서 제시 되었기에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켜 져야 할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창조적 구원적 원칙**과 같습니다.

하지만, 52 개 법규는 표면 구조에 사로잡혀 문자적 혹은 기계적 적용을 하면 안됩니다. 문화적 시대적 배경이 반영 되었고, 특히 죄악된 현실을 감안하여 때론 과하게 엄격하거나 반대로 죄악된 현실을 배려하여 만든 법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 창조적 원칙으로 변혁되어야 할 여지를 남긴 법규라 하겠습니다. 즉, 통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보다는 **변혁이 필요한 현실에 기초한 관습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52 개 법규는 연구하거나 묵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죄악된 현실에 접근하는 방법론과 정신을 배웁니다. 그리고 표면적 문자적 이해보다 심층구조를 이해함으로 법정신을 배우며 현실에 맞게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시대적 특징에 맞게 창조적 정신을 어떻게 현실화 할 수 있는지 정립하는데 매우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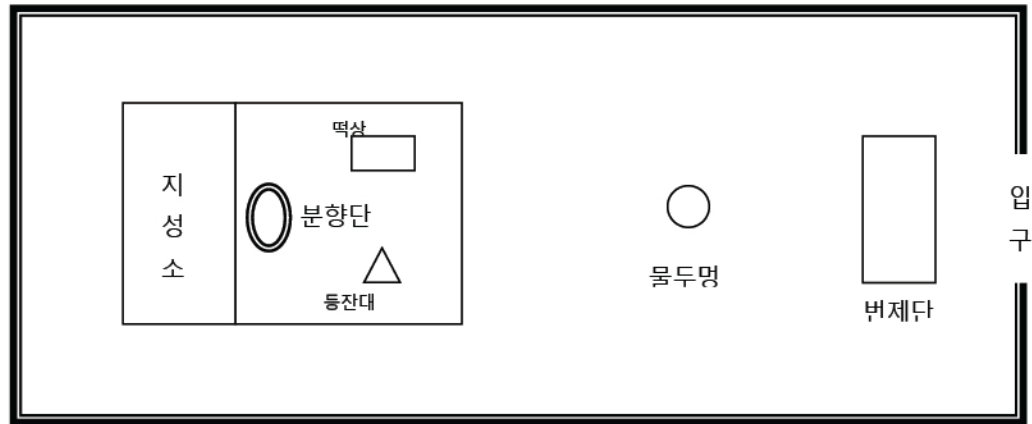
## <둘째. 성막의 설계, 건축, 완성: 25-31 장, 35-40 장>

### A. 기본적인 개요

#### 1. 성막 설명

- 1) 출애굽 2 년차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 2) 길이가 100 규빗(약 45m), 폭이 50 규빗(약 23m)으로 휘장으로 사면을 가렸습니다. 60 개의 청동 기둥으로 휘장이 지탱되었습니다.
- 3) 입구는 동문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은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 4) 성막 내부에 또다른 텐트로 성소가 있는데 두꺼운 휘장을 중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됩니다. 이는 4 중 지붕구조로 덮여 있고, 성소 내부에는 진설병, 금등대, 분향단이 있으며, 휘장 안에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 있습니다.
- 5)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었으며 언약궤는 두 그룹이 마주보며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속죄소(시은소)로 덮었습니다.



## 2. 브살렐에게 맡겨진 사명

### 1) 궁금증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론의 도움을 통해 황금 송아지 숭배를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동안에 홀은 무엇을 했을까?”입니다. 분명히 아말렉과 전투에서 홀이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붙들었는데, 아론이 이런 죄를 지을 때 홀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분명히 모세가 산으로 여호와를 만나러 올라 갈 때에는 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간걸까요? 아론과 함께 이 악행을 도왔을까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 때 홀은 아들과 함께 아론과 백성들을 말리며 우상숭배를 막으려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승됩니다. 성경으로는 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의 전승이 맞다면 홀은 순교자가 됩니다.

우상숭배를 도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 되고 홀과 그의 아들은 돌에 맞아 죽었다는 대비는 너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만약 이 전승이 맞다면 하나님은 홀의 고난을 어떻게 보실까요?

### 2) 홀에게 손자가 있었다.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브살렐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명인데요. [출 31:1-2]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리고 성막 건설 책임자로 하나님이 임명합니다. 저는 훌의 손자 브살렐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브살렐이 세운 성막에 들어갑니다. 브살렐이 만든 제사장 옷을 입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죄를 직면하고, 브살렐을 통한 치유와 용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한 훌의 손자가 입혀준 제사장 옷을 입고, 훌의 손자가 세운 성막 안에 있으면 가문의 영광을 자랑 할 수 없습니다. 은혜와 용서, 치유의 역사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출애굽기 40 장은 성막이 완성 되었다고 마치지 않고, 브살렐이 지은 대제사장의 연미복이 완성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졌다고 하며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성막은 단지 종교적 조형물이 아니라 덮어 주시는 은혜, 바로 치유와 용서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브살렐과 아론 사이에서 일어 남으로 더욱 온전히 완성됩니다. 성막에는 이렇게 덮어주신 치유와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 3. 출애굽의 완성과 성막의 완성

#### 1) 출애굽의 목적

[출 3:18]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의 목적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조차 잊어 버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부르게 하는 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은 몸을 이집트 밖으로 옮겨 놓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면 홍해 바다 갈라지는 순간 드라마틱하게 마쳤으면 됩니다. **몸의 탈출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황금송아지 숭배를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본질과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 2) 출애굽의 완성

출애굽기는 그래서 홍해 바다 사건 다음에 마치는게 아니라 40 장 곧, 성막을 완성함으로 예배가 드려진 후 마칩니다. 출애굽의 완성은 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때 성취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40 장 성막의 제사장이 세워지고 건축 역사를 필하고 예배가 드려짐으로 마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출애굽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바로 계시록이 바라 보는 새예루살렘, 새성전, 새하늘과 새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배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완성은 우리에게 계시록의 종말론적 바로 그 예배를 바라 보게 합니다.**

## B. 창세기의 에덴을 성막으로 다시 재현하시다.

### 1. 거하시는 장소의 회복

[출 25:8, 새번역]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임재하신 에덴처럼 성막이 같은 의도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덴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처럼, 성막도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고정된 장소가 세워집니다.

### 2. 에덴의 모티브로 만들어진 성막

첫째. 각종 꽃들을 두게 했다.

둘째. 금, 보석, 호마노, 베델리엄 같은 보석류를 사용한다.

창 2:12 은 강과 함께 에덴의 보석을 언급합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런데 이 보석으로 묘사된 에덴과 성막을 장식하는 것이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 1) 먼저 출 25:7 은 보석중에 호마노를 사용하게 합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많은 보석이 필요한데, 특히 호마노는 명시하여 언급했습니다.
- 2) 또한 만나와 베델리엄의 연관성입니다. 민 11:7 에서 “만나는 갯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진주’는 에덴의 보석 중 하나인 창 2:12 의 베델리엄입니다. 돌판과 모세의 싹난 지팡이와 함께 성막에는 만나를 한 오멜로 향아리에 넣게 했는데, 바로 베델리엄이라고 별칭 한 만나가 언약궤 안에 있게 했습니다.
- 3) 금은 워낙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천사, 곧 그룹을 언급한다.

- 1) 창 3:24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
- 2) 출 26:1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곧 베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 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처럼 천사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게한 이야기 속에는 그룹에 의해 폐쇄된 에덴 동산이 이제 그룹을 통과하여 들어간 곳으로 에덴의 회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넷째.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거니는 곳이다.

- 1)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곳이었습니다.
- 2) 성막을 통해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회복된 에덴으로서, 열린 에덴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에덴으로서, 그리고 동행하시며 움직이는 에덴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 C. 예수님의 복선이 되고, 종말의 복선이 된다.

1.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장막과 같은 표현으로 묘사한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난 다음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거하시매’는 ‘장막을 치다’ 혹은 ‘장막 속에 살고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는 예수님이 성막이 되어 주셨고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매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성막이 되었고 에덴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하시매”와 같은 표현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출 25:8 을 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또 출 29:45 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성막에 거한다는 표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와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거하는 것과 성막에 여호와가 거한다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한다는 표현이 레위기에서는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행한다”고 번역도 되는 “거닌다”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레 26:11-12 을 봅시다. “11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성막을 두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으로 설명이 됩니다. 즉, 거하거나 거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2 가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에덴과 무슨 상관일까요?

창 3:8 을 봅시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에덴을 회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최종 정점은 예수님이 성소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닐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시록에서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 2. 계시록에 바라보는 종말론적 회복이 장막으로 묘사된다.

[계 7: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 21:1-3]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서서”

이상을 살펴 보면서 발견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성막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종말론적 회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은 이처럼 당대의 예배처소로 단순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잃어버린 에덴의 현존으로, 이 땅에 오실 에덴이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종말에 회복될 마지막 에덴에 대한 그림자로 묘사됩니다.

## 결론: 출애굽을 통해 보는 구원의 길

### A. 죄의 현실에 대한 구원의 역주행 (창세기와 복음서의 연결성)

죄의 결과는 대화, 관계, 장소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더이상 대화하지 않는 사이가 됨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파괴됨으로 함께 걷는 동행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대화(계시)와 동행(관계)하지 않게 되어 이 모든 것이 일어나던 장소, 곧 **에덴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에 대한 확실한 역주행을 보여줍니다. 대화, 관계, 장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 강력하게 계시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 에덴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화하며 동행하시며 죄의 결과를 이기는 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구원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대화와 계시, 관계와 동행, 그리고 장소의 회복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 상실된 것이 새롭게 재정리 됩니다.

1. 말씀으로 창조하시듯 십계명을 말씀 하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지으시기 위해 말씀하심으로 십계명을 만듭니다.
2. 창세기의 에덴을 성막으로 다시 재현하시다.  
첫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에덴과 같은 장소로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그곳에 에덴과 너무나 유사성을 가진 것들로 채우셨습니다.  
셋째. 그룹을 통해 막힌 에덴이 그룹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성막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3. 에덴 같은 성막을 통해 실현하신 일  
첫째. 성막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성호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실패와 상실을 회복하는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에덴의 회복해주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임마누엘로 더욱 완전해 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며, 그리고 성막으로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리고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오고, 신약의 복선이 됩니다.**

## B. 구원의 확장을 향한 정주행 (사도행전과 연결된 십계명과 성막)

1. 출애굽기의 패턴: 출애굽기는 홍해 사건을 통한 구원 역사 이후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답게 서서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2. 사도행전의 패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역사 이후에 사도행전은 성령임재를 통한 방언과 교회의 출현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서게 하고, 이를 통해 열방을 향한 선교 사명을 이어갑니다.

십계명이 주어졌듯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막이 세워진 것처럼 교회가 세워집니다.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시고 선교적 파송이 일어납니다.

### C. 마음이 완악한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 1. 누가 더 악한가?

출애굽은 바로의 악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에 우리는 바로의 악함이 사라진 곳에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더 악하고, 세상이 더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하고 달라진 이스라엘 보다는 끝까지 패역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봅니다. 바로의 악함과 이스라엘의 선함이 출애굽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악하다고 할 수 도 없습니다. 애굽이나 이스라엘이 모두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 2. 한 의가 나타났으니

출애굽이 바로의 악함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악함 속에서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 나타납니다. 악한 바로와 이스라엘 속에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온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한 의가 나타나서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베푸시는 로마서가 떠오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애굽의 악함과 이스라엘의 선함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약속에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선민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고, 선택하시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 D. 말씀과 예배로 백성다운 삶을 산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첫째 율법을 주시고 둘째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원 받은 백성을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길은 예배와 말씀인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 이사야와 국제정치



민종기 목사

KCMUSA 이사장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 I. 서론

### 1. 이사야가 본 계시 혹은 이상(vision).

- 1]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1:1).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비전, 이상.
- 2] 본 것을 기술하였다.
- 3]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1:2)
  - a.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b. 하나님은 말씀으로 조명하신다.
  - c. 선지자는 대언가, 비평가이다.
  - d. 시각적 언어와 발화적 언어를 통한 계시.

### 2.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 1] 유다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 약 60년 동안.
- 2] 웃시야(10대), 요담(11), 아하스(12), 히스기야(13대) 왕의 시대.
- 3] 앗시리아의 패권 시대. 4] 왕국의 심판으로 붕괴, 바벨론 포로 예견.
- 5] 이후의 회복, 메시아 왕국을 예언으로 노래함.

### 3. 저자 이사야.

- 1] 이름의 의미: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
- 2] 아버지가 아모스(Amoz). 선지자 아모스(Amos) 아님.
  - a. 웃시야의 아버지 아마샤 왕의 형제 아모스(Amoz).
  - b. 웃시야 왕과 4촌이라고 여겨짐.
  - c. 기원전 745-680년 사이에 기록됨.
  - d. 소명 받은 때가 740년경. 50년 이상 사역.
- 3] 이사야의 구조상의 특징.
  - a. 이사야 1-39장은 하나님의 사자(ambassador)로서 기술. 유대왕국.
  - b. 이사야 40-55장은 하나님의 시인으로서 위로. 바벨론 유수.
  - c. 이사야 56-66장은 메시아 왕국의 선포와 도전. 페르시아 시대.
- 4] 구조에 대한 논쟁점.
  - a. 버나드 돔의 신학적 도전: “이사야는 3명 이상의 저자가 집필했다.”
  - b. 100년 만에 다시 확인한 것, “이사야는 한 권의 책이다.”
  - c. 쿰란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1-33장과 34-66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 5] 이사야의 가족.
  - a. 한 아내와 적어도 두 아들(사8:3)이 있었다.
  - b.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습’(사7:3),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 c. 둘째 아들 ‘마헬살랄하스바스.’ ‘노락이 속함’, ‘전리품으로 변영한다.’
  - d.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었다 전함(히11:37).
4. 예언서 혹은 선지서 17권 중의 하나.
  - 1] 대선지서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 2] 소선지서 12권.
    - a. 유다의 소선지서 6권: 요엘,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 b. 이스라엘의 소선지서 3권: 호세아, 요나, 아모스.
    - c. 포로 후기의 소선지서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5. 저술의 목적
  - 1] 문서로 남겨진 선지서. 사역 이후에 기록되어 전달됨.
    - a. 먼저 있던 문서 선지서, 아모스는 8세기(기원전 760-753)의 문서.
    - b. 7세기 선지자 이사야는 40년 사역 후 기록.
  - 2] 이사야는 므낫세를 교육하기 위한 문서로 남겼을 가능성.
    - a. 할아버지 아하스의 실패. b. 아버지 히스기야의 성공.
    - c. 유사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의 중요성.
    - d. 므낫세는 현저한 두 왕의 전례 중 할아버지의 길로 감.
  - 3] 멸망 이후에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봄.
    - a. 히스기야에게 유대왕국의 종말을 알려줌.
    - b. 바벨론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 c. 고레스 왕을 세우심으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
    - d.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 제1부 이사야에 대한 개관

### II. 이사야서의 구조

1.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1-39장
  - 1]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1-12장
  - 2] 심판을 받을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 13-23장
  - 3] 시온을 구원하신다: 24-27장
  - 4] 심판받을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 28-35장
  - 5] 앗시리아에 대한 심판, 히스기야의 개혁: 36-39장.
    - a. 아하스왕의 역사: 7장. 일영표의 징조를 구하라.
    - b. 왕하 18:13-20:19와 동일 본문을 누가 인용? 이사야.
    - c. 인용한 이유: 앗시리아 시대 종결과 바벨론 시대 도래를 예고.



## 2. 하나님의 위로와 바벨론: 40-55장

- 1]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40-48장
- 2] 고난의 종을 통한 회복의 희망: 49-55장

## 3.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56-66장

- 1] 예배, 윤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56-59장
- 2] 예루살렘의 영광된 미래. 60-66장

## III. 이사야서의 국제정치적 배경

### 1. 앗수르 시대의 왕들

- 1] 디글랏 빌레셀 3세(기원전 745-727)는 군사적 전성기.
  - a. 불이라고 불리운 왕(왕하 15:19).
  - b.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약함, 므나헴 시대부터 부흥됨.
  - c. 이스라엘 므나헴 조공, 이후 베가와 다메섹 르신이 조공함.
  - d. 친 앗수르 정책을 쓰는 아하스가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 받음.
  - e. 유다 왕 아하스(735-715)가 앗시리아의 도움을 요청.
  - f.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 멸망시킴, 이스라엘을 약화시킴.
- 2] 살만에셀 5세(727-722)의 5년 통치.
  - a.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를 공격함.
  - b. 3년간 포위하여 사마리아를 정복함.
  - c. 이스라엘의 멸망. 할라,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으로 이민.
- 3] 사르곤 2세(722-705)의 17년 통치.
  - a.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사람을 사마리아에 이주.
  - b. 바벨론, 하맛, 가사, 사마리아, 유다로부터 조공 징수(720).
  - c. 이집트의 패배, 바벨론의 반란 진압됨.
  - d. 히스기야(715-687)가 정치, 종교적 개혁을 시작함.
  - e. 히스기야의 반 앗수르 정책 시작.
- 4] 산헤립(705-681)의 24년 통치.
  - a. 앗수르와 바벨론의 반란 진압.
  - b. 사르곤 2세의 죽음 이후에 돌아선 왕들을 정벌함.
  - c. 베니게와 블레셋과 애굽을 패배시킴(701년).
  - d. 유대 성읍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포위 공성전.
  - e. 히스기야의 기도으로 185,000의 군사를 잃고 퇴각. 사 36-37장
  - f. 신전에서 아들에게 살해당함, 에살핫돈(681-669)이 왕이 됨.
  - g. 므낫세가 유대 왕으로 통치함.

### 2. 바벨론 왕과 열국에 대한 예언.

1] 심판을 받을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13-23장)

- 사 13-14:27. 바벨론
- 사 14:28-32. 블레셋
- 사 15-16장. 모압
- 사 17-18. 다메섹의 아람
- 사 19-20. 애굽과 구스
- 사 21:1-10. 바벨론
- 사 21:11-21. 두마(에돔)과 아라비아
- 사 22장. 예루살렘
- 사 23장. 두로

2] 바벨론 왕 나뭇폴라살(기원전 626-605): 앓수르 몰락됨(614-612)

3]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기원전 605-562): 유다왕국의 몰락(586)

a. 1차 포로(605).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 물리침.

수리아, 블레셋 장악. 1차 포로. 다니엘과 왕족이 포로됨.

가나안 주변의 나라들 장악함.

b. 2차 포로(597). 반 바벨론 연합의 붕괴.

여호야긴을 포함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움.

c. 3차 포로(586). 이집트의 충동으로 시드기야 반역.

594, 589년에 반역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감.

포로 된 시드기야의 죽음, 예루살렘의 완전 몰락.

4]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562-560),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석방. 우대.

5] 나보니두스(555-539), 여행과 고고학에 심취. 아들과 공동 통치.

6] 벨사살(539)에 아버지의 부재로 바벨론 성 잔치 후에 사망.

7] 이사야에 상징적으로 예언된 바벨론 왕은 누구인지 확실치 않음.

a. 사 13:1-14:27에 나타난 바벨론왕(나보니두스, 벨사살로 추측)

b. 사 21:1-10에 나타난 바벨론 왕(나보니두스, 벨사살로 추측)

c. 사 39:1-8의 바벨론 왕 므로닥발라단(기원전 721-710, 704-703).

d. 사 43:14-21. 바벨론 왕이 멸망하다(나보니두스, 벨사살).

e. 사 46-48장. 바벨론의 멸망(나보니두스, 벨사살).

3. 페르시아와 고레스(600-530, 재위 559-530)에 대한 예언.

1]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다(기원전 539년).

a. 바벨론 성의 해자, 강물이 마르다.

b. 바벨론 성의 파괴 없이 성읍을 빼앗음.

사 44:27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 고레스를 왕으로 삼아 열국을 항복시킨다.

- a. 하나님이 먼저 가서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심.
- b. 성문을 열어 열국을 굴복시킴.
- c.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그리스 북부.

사 45:1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늦문을 쳐서 부수며 쇠빰장을 꺾고

### 3] 흑암 중의 보화와 숨긴 재물을 주리라.

사 45:3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 4] 고레스를 통한 유다의 성전 건축 사명.

- a. 고레스는 150-100년 전에 예언됨. b. 그는 나의 목자이다.
- c. 그는 백성을 복귀시킨다. d. 성전을 중건한다(538).

사 44: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 5] 고레스와 예언의 성취.

- a. 100-150년 전에 예언됨. b. 요시아 300년 전에
- c. 예수 700년 전 예언. d. 고레스의 평화. Pax Persica(559-330)!

## IV. 이사야서의 주요 주제 7가지

### 1. 백성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 1] 하나님 백성의 범죄.

- a.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1:10).
- b.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42:18-25).

#### 2] 앗수르를 진노의 막대기와 손에 든 몽둥이로 사용(10:5).

- a. 이스라엘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 b. 극상품 포도원의 들 포도! 언약 백성으로서 사명을 버렸다.

#### 3] 하나님 구원의 은혜.

- a. 너는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 b. 나는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다.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43:24-25).

사 43:24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변혁.

- 1]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1:21).
- 2] 포로 이후 다시 신부로서 불림을 받는다.
  - a. 헵시바(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와 뿔라(결혼한 여자)라 일컬음(62:4).
  - b. 예루살렘이 다시 많은 사람으로 충만해진다.

사 62: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 3]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 a. 예루살렘의 회복(56:7-8). 이방인도 그 성에 들어옴.
  - b. 새 하늘과 새 땅(65:17-25).

사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3. 남은 자(remnants)를 일으킴.

- 1] 남은 자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존한 신실한 소수.
- 2] 이들은 장차 있을 회복과 약속의 성취를 위한 씨앗이다.
- 3] 남은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이루어진다(1:9).
  - a. 이들은 심판을 이기고 고난에서 나온다(4:2-3).
  - b. 그들은 그루터기이며 거룩한 씨앗이다(사 6:11-13)
- 3] 이사야 아들의 이름 “스알야슥”(사 7:3,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 a. 거룩한 씨앗을 유지하시는 하나님.
  - b. 앗수르의 심판 이후에도 돌아올 신실한 무리(10:20-22).
- 4] 메시아 왕국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사 11:11-16).
  - a. 앗수르로부터 구원하시는 문맥 속(사 37:31-32)
  - b. 바벨론으로부터 남은 자를 끝까지 돌보심(46:3-4).
  - c. 새 언약의 공동체를 이룬다.

4. 여호와와 종의 노래

- 1] 사 42:1-4.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 a.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심.
  - b. 잔잔한 목소리로 이방에 정의를 베푸시는 종.
  - c. 사랑과 자비의 종, 겸손한 종, 은혜로운 종.

사 42:1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 그는 죄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 2] 사 49:1-6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리라.
  - a. 모태에서 태함을 입음. 입을 날카로운 화살처럼 닦으심.
  - b.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여호와와 종.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 3] 사 50:4-9.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진 종.
  - a. 가난하고 곤고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지 아는 자.
  - b. 고통과 모욕을 당하는 여호와와 종. 침 뱉음, 수염 뽑힘 당함.
- 4] 사 52:13-53:12. 고난을 받다가 죽는 종.
  - a. 고난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는 종.
  - b. 이 버림받은 종을 통하여 백성을 용서함.
  - c. 백성이 죄에서 구속받음.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5] 여호와와 종은 누구인가?
  - a.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간 개인이나 집단.
  - b.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공동체.
  - c.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 d. 메시아 예언으로는 단수, 메시아적 공동체로서는 복수.

#### 5. 고통당한 종 메시아(사 53장).

- 1] 많은 신약의 책에서 인용됨.
  - a. 이사야 전체 약 40개 구절이 200차례나 인용됨(부록1 참조\*).
  - b. 53장의 12개 구절이 신약에 78번이나 인용됨(부록2 참조\*).
- 2]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 3] 그리스도의 고난의 내용.
  - a. 그리스도의 비하,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심.
  - b. 백성들이 오신 주를 불신. 멸시당하시고 고통받으셨다.
  - c. 우리의 죄심과 수고를 짊어지셨다.
  - d.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셨다.
  - f. 우리를 위하여 버림당하시고 고발자 앞에서 침묵하셨다.
  - g. 생명이 끊어졌다. h. 그 무덤이 부자와 같이 되었다.
  - i. 자신의 씨를 보게 된다. j.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부활 이후 영원함.

6. 국가의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

- 1] 왕이신 그리스도. 스랍의 존재(사 6장).
  - a. 웃시아 왕(801-733, 785-733 재위)의 죽던 해.
  - b. 10대 왕 웃시아 나병 발생 후 요담의 대리통치. 16세부터 52년 통치.
  - c. 환상 속의 주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심.
  - d. 의복은 성전에 가득하였다(사 6:1-2).
  - e. 이사야를 치유하는 스랍, 선지자의 소명(사 6:6-8).
- 2] 아침의 아들 계명성(사 14장)이라는 초자연적 존재.
  - a. 겔으로는 타락한 바벨론이라는 존재에 대한 지적.
  - b. 에스겔은 두로 왕(겔 28장)을 지적하며 “덮는 그룹”이라 함.
  - c. 그룹은 사탄의 지시하며,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이다.
  - d. 높은 지위의 천사가 타락함.
  - e. 제국의 배면에서 활동하는 영적인 세력 의미함.
  - f. “하나님의 천상 회의”(God's heavenly council)가 열린 장소.
  - g. 교만한 바벨론 왕으로 표현된 영적인 존재.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7. 성령 충만한 메시아의 지도력.

- 1] 메시아가 세울 평화의 나라(사 11:1-9).
  - a. 다윗의 왕가를 회복하는 메시아. b.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리는 메시아.
  - c. 공의로운 인간관계 형성. d. 자비스런 인간-자연 관계의 형성.
  - e. 성령을 통한 지도자의 능력, 피조물을 관리하는 능력.
  - f. 모세, 여호수아, 삼손, 다윗 등의 지도력. 1

사 11: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그의 위에 여호와 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2] 메시아의 섬기는 지도력(사 42:1-4)

- a. 성령으로 이방에 정의를 베풀. b. 겸손한 지도력, 목소리를 높이지 않음.
- c. 약한 자를 돕는 지도력, 회복의 지도력. d. 마침내 정의를 이룸.
- e. 응보정의 < 분배정의 < 회복정의(restorative justice).

사 42:1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3] 메시아의 희년적 회복 사역.

- a. 성령 충만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
- b.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심. c.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
- d. 누가복음 4:18-19에는 은혜의 해를 전하려 함이라.
- e. 보복의 날은 재림을 통해서 이룬다.
- f. 앙드레 트로끄메 이후 많은 주석가들이 희년 선포라 해석.

사 61: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제2부 이사야와 국제정치

### V. 선지자와 국제정치

1. 세계화의 시대와 국제정치.

- 1] 지구촌 현상. 2] 무역과 국제관계의 증대.
- 3] 선교와 국제적 맥락. 4] 열방의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시 145:1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2. 선지자와 국제적 사역.

- 1] 아모스의 주변 열국에 대한 언급.
- 2] 하박국의 바벨론 제국주의 저주. 요엘의 전쟁과 열국의 심판.
- 3] 요나의 니느웨 선교, 나훔의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 4] 오바댜의 에돔에 대한 경고.
- 5] 소선지서 12권 중 국제관계가 생략된 문서가 드물다.
  - a. 제국 아래의 구약 교회: 포로 후기 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 b. 이스라엘의 선지서 중 호세아 정도가 타국에 대한 언급 약함.
  - c. 6개의 선지서 요엘,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국제정치 언급.
- 6] 대선지서인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국제정치.
- 7] 이사야서는 앗시리아(1-39장), 바벨론(40-55장)과 페르시아(56-66장)가 배경.

## VI. 앓시리아 제국과 이사야의 예언[1]: 아하스 시대의 국제관계.

1. 하나님의 신정정치(神政, theocracy).
  - 1] 출애굽 시대의 선지자 정치.
  - 2]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군인정치.
  - 3] 왕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 4] 이사야 6장, “높은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2. 아하스 왕(BC 743-716, 732-716년 단독 통치)이 맞이한 상황.
  - 1]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두려워 말라.
  - 2] 이스라엘이 아하스의 임기 중 멸망(722년).
    - a. 국내의 분위기, 친 앓시리아파, 반 앓시리아파, 친 애굽파의 공존.
    - b. 이스라엘에 패전함. 12만이 죽고 20만이 포로로 잡힘.
    - c. 오렛 선지자의 예언으로 다시 돌아옴(대하 28장).
  - 3] 앓시리아의 패권에 의지하다. “팍스 앓시리카”(Pax Assyrica).
    - a. 이스라엘, 아람, 주변의 나라에 대항하기 위한 외교적 방법.
    - b. 아하스는 성전과 궁궐의 금을 앓시리아에 제공.
    - c. 앓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구원 요청(왕하 16장, 대하 28장).
3. 이사야의 아하스를 향한 국제정치적 조언.
  - 1] 아하스의 잘못은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들을 몰렉에게 제사함.
  - 2]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의 결탁으로 재침공의 위협을 받다.
  - 3] 아하스 왕이 유다를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1:10)으로 만듦.
  - 4] 이사야 7장-12장에 걸친 예언. 자식을 바친 자에게 자식을 통한 예언.
    - a.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할 때”(사 7:2)이다.
    - b. 이스라엘 곧 멸망. 65년 후 앓술바니팔의 혼혈정책(사 7:8, 734년경).
    - c. 징조를 구하지 않는 왕 아하스에게 주시는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7:14-16)  
왕이 아는 그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아람-이스라엘 동맹은 파멸에 이른다.
  - 5] 이사야에게 주신 두 아들을 통한 예언.
    - a.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의미의 “스알야습”.
    - b.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마헬살랄하스바스”.
    - c. 이 모든 일은 “임마누엘”의 역사(7:16, 8:8, 8:10). 3번 임마누엘.
  - 6] 734년에 선포된 예언은 2년 후 732년 아람의 멸망, 722년에 이스라엘 멸망.
  - 7] 669년에는 앓수르 앓술바니팔(669-626)이 이스라엘에 이민 받아 혼혈.

4. 이사야의 예언이 주는 국제관계적 함의.

- 1] 국제관계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 a. 권력과 무력 > 도덕이나 윤리.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
  - b. 하나님의 왕 되심은 열방까지 미친다.
  - c. 이사야 13-35장에 하나님의 확장된 사역은 바벨론, 애굽과 열방에.
- 2] 앗시리아의 우월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굴욕외교는 아니다.
  - a.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 b.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때문에 영적 정체성을 버리지 말라.
- 3] 이스라엘이 패권국 앗시리아와 만드는 평화 체제에 속지 말라.
  - a. 평화의 이상을 구하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사 2:1-4, 미 4:1-5, 율 4:9-10).
  - b. “팍스 앗시리카”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Pax Dei).
- 4] 아하스의 실패.
  - a. 내치에서 정의와 사랑의 구현하지 못하다.
  - b. 제국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 c. 아하스는 국제관계를 통해 “견딜만한 평화”(sustainable peace) 만들.
  - d. 하나님은 “건실한 평화”(stable peace)를 요구함.
  - e. 건실한 평화는 반드시 국제관계의 안정과 내치의 정의로 달성.

VII. 앗시리아 제국과 이사야의 예언[2]: 히스기야 시대의 국제관계.

1. 히스기야의 통치.

- 1] 히스기야(715-687)는 아하스가 죽은 후 29년 동안 통치.
- 2] 아하스와 공동 통치 기간 중, 친 앗수르 정책.
  - a. 디글랏빌레셀 3세,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의 사망까지(705년)
  - b. 유다와 앗시리아의 관계는 종주권자와 봉신의 상하관계.
  - c. 무거운 경제적 부담.
- 3] 사르곤 2세(722-705)의 죽음은 봉신국 이스라엘의 독립 기회.

2. 이사야의 히스기야를 향한 정치적 조언의 배경.

- 1] 반역의 불길. 산헤립의 시대에 나타난 국제관계.
- 2] 반 앗시리아 연대: 이집트와 구스, 블레셋, 두로와 시돈, 에돔과 암몬, 유대.
- 3] 내부 반란 세력을 평정한 산헤립, 701년에 출정.
  - a. 해변의 페니키아, 암몬, 모압, 에돔 지역의 왕을 다시 복속시킴.
  - b. 블레셋의 아스돗을 복속키시고, 아스글론과 에그론 패배시킴.
- 4]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가 산헤립에 의하여 함락.

- a. 히스기야는 산헤립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공물로 부과받음.
  - b. 히스기야는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과 은을 모두 벗겨내어 보냄.
  - c. 왕궁 곳곳에 있는 금은을 꺼내어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에게 공물로 전달.
- 5] 산헤립의 군대는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강권.
- a. 군사적 위기와 함께 온 중병의 재난.
  - b.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사 38:3) 기도.
  - c. 응답.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사 38:5-6).
- 6] 히스기야에 대한 치유의 말씀은 그를 강화, 저항의 결의를 줌.
3. 이사야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
- 1] 항복을 종용하는 앗시리아가 반 앗시리아 연맹을 비난함.
- a. 아직 구스와 이집트의 군대가 패퇴하기 전이다.
  - b. 산헤립이 라기스 전쟁 중 앗수르의 사령관과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회유함.
  - c. 유다의 궁내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셉나와 사관(史官) 요아가 연설을 들음.
  - d. 랍사게의 연설(사 36:4-10, 12-20) 중 첫째는 유대의 왕과 귀족에게.  
둘째는 유대 군민을 향하여 주어짐.
- 2] 랍사게의 심리전.
- a. 이집트를 의뢰하지 말라. 갈대 지팡이!
  - b. 자신이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전쟁하러 왔다는 랍사게의 거짓 예언.
  - c. 여호와 신앙을 해체하려 함. 여호와는 방어 능력이 없다(사 36:18-20).
- 3]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간청하고 응답받다.
- a. 산헤립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감 예언.
  - b. 그가 본국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다(사 37:5-7).
- 4] 산헤립이 라기스를 함락시키고 립나를 공격할 때, 다시 사자를 보냄.
- a. 모욕적인 독신(瀆神)의 내용(37:8-13).
  - b. 히스기야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37:14-20).
- 5] 이사야의 계시받은 내용이 전달됨(37:21-35).
- a. 산헤립을 통하여 열국을 정벌하는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
  - b.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알지 못한 것을 꾸중함.
  - c.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퇴각한다.
- 6] 산헤립과 그 온 군대는 괴멸적 타격을 입고 회군(37:36-38).
4. 이사야의 국제정치적 조언.
- 1] 앗시리아의 공격으로 생긴 유다의 안보 위기 상황.
  - 2] 이사야는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킴.
  - 3] 유대왕국은 여호와의 제사장 국가이며 여호와의 봉신국이다.
  - 4] 국제정치적 제언.

- a. 이사야의 조언은 친 앗수르 정책이나 반 앗수르 정책을 강요하지 않는다.
  - b. 유대왕국이 국제관계를 초월하거나 무시하도록 인도되지 않는다.
  - c. 아하스는 친 앗시리아 정책, 히스기야는 반 앗시리아 정책.
  - d. 오직 언약 국가의 자주성을 잃지 말라.
  - e. 국제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
- 5] 국제관계에서 유대 국가의 정체성 유지가 중요한 이유.
- a. 당시 각국의 국가적 정체성이 자국의 신과 연결됨.
  - b. 다른 나라와 종주권 언약을 맺으면 신도 수입해야 한다.
  - c. 아하스의 잘못을 앗수르의 신과 기타 우상을 받은 것.
  - d. 히스기야는 신명기적 언약으로 복귀하여 종교개혁 단행.

### VIII. 바벨론 제국의 비신화화를 위한 이사야의 예언.

1. 두 번째 출애굽을 위한 예언.
  - 1] 유다, 앗수르를 비롯한 강대국에 대한 비판적 예언(1-39장).
  - 2] 유다가 멸망한 이후 시대에 대한 위로와 소망의 예언(40-66).
    - a. 586년 유다 멸망 후 “국가 재건립”(nation-rebuilding)의 소망(40-55장).
    - b. 539년 고레스의 바벨론 멸망 이후의 페르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56-66장).
2. 바벨론을 향한 이사야의 비신화화(40-55).
  - 1] 바벨론이 유대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
  - 2] 이사야는 바벨론 제국을 비신화화(demythologization, 非神話化).
  - 3] 아하스 시대 이사야는 주변의 국가를 징계. 13-23장.
  - 4] 주변 나라는 심판의 대상: 바벨론에 대한 징계의 메시지는 13장 이후.
    - a.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와 날”은 예비 됨. b. 메대, 파사에 의한 멸망.
    - c. 이사야 21:1-9,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국가는 엘람과 메대의 동맹.
    - d. 여호와와 앗수르 신 “앗술”(Assur)과 바벨론의 벨과 느보 무력화.
  - 5] 언약적 신뢰 없으면 안전망이 없다(사 28-31장, 36-39장, 왕하 18-20).
    - a. 여호와에 대한 언약적 신뢰를 상실하면 궁극적인 외교적 안전망도 없다.
    - b. 국제정치의 현대적인 격언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국제정치의 목적으로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 c.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이사야의 격려.
3. 국제관계 속에서의 여호와와 탁월성.
  - 1] 언약의 종주권자 여호와와 위상이 가지는 탁월성(Aretalogy).
  - 2]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유대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로 바벨론을 멸하심.
  - 3] 이사야 40-55장의 주된 가르침. “나는 여호와니라”(ani YHWH).

- a.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 b. 모든 우상과 열방의 신들을 무효화시키는 주권자.
- c. 이사야의 반복되는 표현은 이사야에서 총 22번 등장.  
 40-55장에서는 18번(41:4, 13, 17, 42:6, 8, 43:3, 15, 45:3, 5, 6, 7, 8, 18, 19, 21, 48:17, 49:23, 26)  
 1-39장에서 단 한 번(27:3), 56-66장에서 세 번(60:16, 22, 61:8)이 전부.
- d.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탁월성 강조함.
- 4] 40:10에서 “주 여호와”(the Sovereign LORD)는 국제정치의 주권자.
  - a. 1-39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에서 활동하시는 주권자.
  - b. 40-55장에서는 열방의 신들 위에 군림하는 탁월한 존재.
  - c. 여호와는 만신전(萬神殿, pantheon)에 진열된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
- 5] 주 여호와와 보편적 주권.
  - a. 40-48장은 바벨론의 통치 중 페르시아 고레스왕의 도래
  - b. 49-55장은 페르시아의 승리에 이어지는 예루살렘 복귀.
  - c. 메시아의 도래. 고레스, 고난받는 종.

## IX. 페르시아 제국과 새로운 언약공동체.

1. 페르시아제국의 독특성.
  - 1]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내 목자”(사44:28).
  - 2] “기름 부음 받은 자”(사45:1)로 표현됨.
  - 3] 바벨론 제국은 심판의 도구, 페르시아는 회복의 도구.
  - 4] 이후의 유대민족은 성전 공동체로 존재하는 공동체.
2. 종교·문화적 공동체로서의 구약교회.
  - 1] 페르시아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하시는 하나님.
  - 2] 귀환과 종교·문화적 공동체로 출발함.
  - 3] “제사장 나라”(priestly kingdom)로 존재.
  - 4] 이사야 56-66장의 배경은 기원전 539년 이후.
    - a.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하여 멸망. b. 국가로서의 유대왕국 없음.
    - c. 다윗 왕조의 위신과 영광의 회복은 소망으로 남음.
  - 5] 신앙공동체인 유대민족.
    - a. 왕조와 정치적 장치 및 군대와 주권의 상실.
    - b. 유일신(monotheism) 신앙은 유지되는 하나님 나라.
    - c. 페르시아 고레스의 문화적 수용정책.
    - d. 유대인의 신앙은 한 민족에 국한된 교회가 아니다.
    - e. 성전의 존재, 타민족에 대하여 열려있는 신앙공동체.



### 3. 존 골딩게이의 이사야 56-66장 구조와 특징

|                |                            |
|----------------|----------------------------|
| A 56:1-8       | 서문: 여호와와 예배공동체 속에서 이방인의 위치 |
| B 56:9-59:8    |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여호와와 도전       |
| C 59:9-15a     | 여호와와 용서와 회복을 위한 기도         |
| D 59:15b-21    | 심판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비전           |
| E 60:1-22      | 회복된 예루살렘의 비전               |
| F 61:1-9       | <b>예언자의 출사표</b>            |
| E' 61:10-62:12 | 회복된 예루살렘의 비전               |
| D' 63:1-6      | 심판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비전           |
| C' 63:7-64:11  | 여호와와 용서와 회복을 위한 기도         |
| B' 65:1-66:17  |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여호와와 도전       |
| A' 66:18-24    | 후기: 여호와와 예배공동체 속에서 이방인의 위치 |

- 1] 왕조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다.
- 2] 공동체의 회복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참한다.
- 3] 종족의 차별이 극복된 다문화적 정체성을 가진다.
- 4]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공동체(사 56:1-8, 66:18-24).
- 5] 우상 타파,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의 공동체(56:9-59:8, 65:1-66:17).
- 6] 말씀에 대하여 회개로 응답하는 공동체(59:9-15a, 63:7-64:11).
- 7] 메시아적 공동체와 메시아로 집중됨(60-62장).

### 4. 제국 속에 존재하는 메시아 공동체.

- 1] 잠정적인 국가와 신국의 영원성.
  - a. 선지자에게 왕권과 국가는 잠정적이다.
  - b. 유대왕국이 타락한 국가가 되어 멸망.
  - c. 종교·문화적인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 2] 포로기 이후의 회복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하여 성취.
  - a.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와와 종”이 섬김.
  - b. 출사표를 낸 목자는 정치지도자인 고레스와 다르다.
  - c.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며,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지도자.
  - d. 하나님의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자(사 61:1-3).
- 3] 메시아 공동체의 차별성.
  - a.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처럼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받지 않는다.
  - b. 메시아는 제국을 세우지 않는다.
  - c. “아카이메니드 행정부”(Achaemenid administration) 아니다.
  - d.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분리한다.

4] 노만 고트발트의 회복된 공동체의 모델.

a. 회심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세우는 나라.

b. 회복된 공동체가 국제정치의 초강대국과 공존하는 나라.

c.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의 세계 제국 속에서 제사장적 영토가 된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사 19:19-25)

### 제3부 이사야와 도래하는 메시아왕국

#### X. 이사야와 메시아 왕국의 성취.

1. 영원한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신다.

1] 지상의 정치구조 속에서 영원한 왕이나 영원한 나라는 없다.

2]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다.

a.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사무엘하 7:13)는 나단의 신탁.

b. 이사야가 본 새로운 왕, 곧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사야 9:6)이라고 예언.

c. 예수 안에서 성취된 영원한 왕의 예언.

d.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마 28:18).

3]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인자.

4] 십자가를 지신 왕.

2. 새로운 출애굽(43:16-21)인 출바벨론이 이루어진다.

1] 과거에 바다에 마른 길을 내신 하나님.

2] 이제는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다.

3]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차 출애굽인 유대민족의 귀환.

사 43: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밋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3. 구속자(kinsman-redeemer), 고엘이신 예수님의 구속.

1] 성경 전체의 100번 정도 출현.

2] 이사야서 40장~55장에서 이스라엘의 고엘(구속자)로 묘사.

3]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구원과 회복의 능력자, 신실하심.

4] 41:14, 43:1, 44:6, 47:4, 54:5, 63:16 등.

41:14 지령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시니라.

43: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4: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와 그의 구속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54:5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며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63:16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니이다

5] 이사야에서 고엘과 관련된 주제들

- a. 포로에서의 회복. b. 정의와 긍휼을 베푸심.
- c. 신실한 사랑의 남편 구속자로 남으심. d. 주는 우리의 아버지 구속자.
- e.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됨.

4.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라를 이룬다.

- 1]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함.
- 2] 함께 예배함. 3] 여호와의 종은 이방의 빛이다(49:6).
- 4] 이방인과 고자도 하나님의 집에서 받아들여진다(56:3-8).
- 5] 여성도 수용됨. “땅끝 모든 사람이” 초청받는다(45:22).
- 6]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짐(갈 3:28) 예고.

5. 열방이 새 예루살렘으로 모임.

- 1] 시온이 빛으로 가득 채워짐. 2] 시온으로 열방이 모인다(2:2-4)
- 3]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시온의 빛으로 돌아온다(60:1-7).
- 4]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됨.
- 5] 교회를 통한 부분적인 성취. 종말에 회복될 이스라엘
- 6] 재림 이후에 새예루살렘의 내려옴.

사 2: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 말일에 여호와와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6. 천·지·인의 관계가 완성된다.

- 1]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 2] 인간과 인간의 관계.

- 3]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완성된다.

## XI. 현재에 읽는 이사야의 정치신학.

1. 제국에 관련한 교회의 입장을 묵상하라.
  - 1] 저항: 앗시리아와 그 신성모독에 대한 저항이나 굴복이나.
  - 2] 항복: 바벨론에 대한 저항 혹은 항복.
  - 2] 지원: 페르시아에 대한 기도와 협조.
    - a.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하나님이 세운 목자이다.
    - b.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심원을 이룬다.
2. 친 앗시리아 혹은 반 앗시리아 정책을 계산하라.
  - 1] 궁극적인 종주권자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여부.
  - 2] 이상적인 정치지도자는 국제관계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 3]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언약에 충실함이 핵심.
3. 바벨론에서 신앙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라.
  - 1]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
  - 2] 유대민족의 국가적 부활, 하스모니안 왕조.
  - 3]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과 국가들이 독립.
  - 4] 종교·문화적인 독특성을 지속적으로 담지한 공동체 유지.
4. 하나님의 국제정치적 경륜과 자비에 의뢰하여 기도하라.
  - 1] 출애굽, 출바사 예언.
  - 2]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사 44:28-45:3).
  - 3] 국제정치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 4] 하나님의 나라는 총독의 통치하에서도 유지된다.
  - 5] 이민하는 자녀들이 신앙 정체성, 민족 정체성의 유지.
  - 6] 탁월한 지도력의 발휘,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와 느헤미야.
5.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명 선언, 이사야 61:1-3.
  - 1]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공존.
  - 2] 제국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나라.
  - 3] 십자가와 부활로 제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다.
  - 4] 결국 천국은 제국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되다.

## XII. 결론: 천국 시민의 자의식.

1. 메시아의 의식의 성숙을 향한 과정.
  - 1]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다.
  - 2] 의식의 단계, 자의식의 단계, 완숙한 사명의 확신 단계.
  - 3]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사역의 프로그램 완성.
2. 시험과 사역을 통한 프로그램의 확정.
  - 1] 메시아의 사명.
  - 2]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구분하심.
  - 3]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가 아니다.
  - 4] 사랑과 공의의 완성인 십자가.
    - a. 구속자. b. 해방자.
    - c. 회복자. d. 공동체의 완성.
3. 나는 누구인가.
  - 1]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 2]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이다.
  - 3]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 시민이다.
  - 4] 나는 전도자이며, 문화 변혁자이다.
  - 5] 나는 영적인 전쟁의 수행자이다.
  - 6] 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진의 파괴자이다.
  - 7]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열방의 세우는 종이다.
4. 국제정치의 하나님.
  - 1] 열방의 평화를 세우심.
  - 2] 열방의 화해를 세우심.
  - 3] 열방의 정의를 세우심.
  - 4] 열방의 구원을 세우심.

부록1 이사야서가 인용된 신약성경. 200회 이상

| 예언의 내용     |                     | 신약에서의 초림으로 성취                                                                |
|------------|---------------------|------------------------------------------------------------------------------|
| 이사야 6:1-5  | 하나님 영광을 본 이사야       | 요한복음 12:41 영광의 주를 본 이사야                                                      |
| 이사야 6:10   | 이스라엘 마음이 완악해짐       | 요한복음 12:40 믿지 아니함                                                            |
| 이사야 7:14   | 동정녀 탄생              | 마태복음 1:23-25 처녀 잉태                                                           |
| 이사야 9:1-2  | 스블론과 납달리에 빛이 비침     | 마태복음 4:12-16 흑암의 빛                                                           |
| 이사야 9:6    | 한 아기가 태어남           | 마 1:23; 눅 1:31-33; 2:7,11 임마누엘                                               |
| 이사야 11:1   |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다윗 계보) | 눅 1:31-33 다윗의 왕위                                                             |
| 이사야 11:2   |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머무름    | 마 3:16; 12:18; 막 1:10; 눅 3:22<br>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심                              |
| 이사야 28:16  |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         | 마 21:42-44 건축자의 버린 돌                                                         |
| 이사야 29:18  | 귀먹은 자가 듣고, 눈먼 자가 봄  | 마 11:5 장애자와 환자의 회복                                                           |
| 이사야 40:3-5 |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선포    | 마 3:3; 막 1:3; 눅 3:4-6; 요한복음 1:23<br>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
| 이사야 42:1-4 | 메시아의 부르심과 사역        | 마 12:18-21 택한 종, 기뻐하는 자                                                      |
| 이사야 42:1   |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      | 마 3:17, 17:5; 막 1:11, 9:7;<br>눅 3:22, 9:35. 내 사랑하는 아들, 기쁨                    |
| 이사야 42:1   | 나의 영을 그 위에 두었노라     | 마 12:18 영을 그 위에 두다.                                                          |
| 이사야 42:3   | 소리치거나 약자를 해치지 않음    | 마 12:19; 26:57-68, 27:11-14;<br>눅 23:9-11; 벤전 2:23 고난 당하신 예수                 |
| 이사야 50:6   | 맞고, 수염 뽑히고, 침뱀을 당함  | 마 26:67-68, 27:26-31; 막 14:65,<br>15:16-20; 눅 22:63-65; 요 18:22<br>고난 당하신 예수 |
| 이사야 50:7   | 부싷돌처럼 얼굴을 굳힘(결심)    | 눅 9:51 예루살렘행을 굳게 결심                                                          |
| 이사야 53:1   | 메시아의 메시지를 믿지 않음     | 요 1:11, 12:38; 롬 10:16 백성이 믿지 않음                                             |
| 이사야 53:3   | 메시아는 멸시받고, 고통당함     | 마 23:37, 26:36-46; 막 14:32-42;<br>눅 13:34. 메시아의 고난                           |
| 이사야 53:4   |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심    | 마 8:16-17 병든 자를 고치심                                                          |
| 이사야 53:4-6 |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심 선포    | 마 20:17-19; 막 10:32-34; 눅 18:31-34<br>요 1:29; 고후 5:21 대속의 죽음                 |
| 이사야 53:5   |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옴      | 벤전 2:24 죄로부터 구원을 얻음                                                          |
| 이사야 53:6   | 세상의 죄가 메시아에게로 전가    | 고후 5:21; 딤편 2:5-6; 요일 2:2 죄 전가                                               |
| 이사야 53:7-8 | 메시아는 억눌림과 고난을 당함    | 행 8:32-33 조용히 죽어간 어린 양, 도살됨                                                  |
| 이사야 53:7   | 고발자 앞에서 침묵하심        | 마 26:63, 27:12; 막 14:61, 15:5; 눅 23:9;<br>요 19:9; 벤전 2:23 잠잠히 침묵하신 예수        |
| 이사야 53:8   | 생명에서 끊어짐            | 마 27:50; 막 15:37; 눅 23:46; 요 19:18<br>십자가에서 돌아가심                             |



|            |                   |                                                                                       |
|------------|-------------------|---------------------------------------------------------------------------------------|
| 이사야 53:8   | 백성의 죄를 위해 메시아가 죽음 | 행 2:22-23, 5:30-31. 정하신 대로 죽음                                                         |
| 이사야 53:9   | 부유한 자의 무덤에 묻히심    | 마 27:57-61; 막 15:42-47; 눅 23:50-55;<br>요 19:38-42.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
| 이사야 53:9   | 메시아에게는 거짓이 없음     | 베전 2:22 범죄나 거짓이 없음                                                                    |
| 이사야 53:10  |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들이 죽음 | 마 26:39; 눅 22:42; 요 12:27; 행 2:23<br>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무법자의 손을 빌림                          |
| 이사야 53:10  | 메시아의 죽음은 속죄제물     | 요 1:29; 고전 5:7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
| 이사야 53:10  | 메시아는 자신의 씨를 보게 됨  | 마 28:8-10, 16-20; 막 16:9-18;<br>눅 24:13-49; 요 20:11-21:23; 행 1:1-8<br>제자들의 공동체가 다시 생김 |
| 이사야 53:10  | 메시아는 오래 살게 됨      | 막 16:19; 눅 24:51; 행 1:9, 5:31;<br>고전 15:3-8, 20-28 부활 이후 승천하심                         |
| 이사야 53:11  | 메시아의 만족           | 히브리서 1:1-4.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
| 이사야 53:11  | 좋은 죄를 짊어지고 의인을 세움 | 롬 3:21-26; 5:17-21; 고후 5:21<br>죄인을 의인으로 세움                                            |
| 이사야 53:12  |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미래     | 히 1:1-4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
| 이사야 53:12  | 메시아의 자발적 죽음       | 마 20:28; 막 10:45; 요 10:11-18.<br>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                                       |
| 이사야 53:12  | 메시아가 범죄자들과 함께함    | 눅 22:37, 23:32-43.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                                                        |
| 이사야 53:12  | 메시아는 죄를 짊어지고 중보하심 | 눅 23:34. 저희의 죄를 사하소서<br>행 5:31; 히 7:25, 9:24; 롬 8:34.<br>보좌 우편에서 간구함                  |
| 이사야 55:3   | 메시아는 부활하심         | 행 13:34.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
| 이사야 61:1-2 | 메시아의 희년 선포        | 눅 4:18-30. 나사렛 회당의 선언.                                                                |

부록2 이사야 53장이 인용된 신약성경 70회 이상

|            |                   |                                                                                       |
|------------|-------------------|---------------------------------------------------------------------------------------|
| 이사야 53:1   | 메시아의 메시지를 믿지 않음   | 요 1:11, 12:38; 롬 10:16 백성이 믿지 않음                                                      |
| 이사야 53:3   | 메시아는 멸시받고, 고통당함   | 마 23:37, 26:36-46; 막 14:32-42;<br>눅 13:34. 메시아의 고난                                    |
| 이사야 53:4   |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심  | 마 8:16-17 병든 자를 고치심                                                                   |
| 이사야 53:4-6 | 죄를 위해 죽으심 선포      | 마 20:17-19; 막 10:32-34; 눅 18:31-34<br>요 1:29; 고후 5:21 대속의 죽음                          |
| 이사야 53:5   |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옴    | 벧전 2:24 죄로부터 구원을 얻음                                                                   |
| 이사야 53:6   | 세상의 죄가 메시아에게로 전가  | 고후 5:21; 딤후 2:5-6; 요일 2:2 죄 전가                                                        |
| 이사야 53:7-8 | 메시아는 억눌림과 고난을 당함  | 행 8:32-33 조용히 죽어간 어린 양, 도살됨                                                           |
| 이사야 53:7   | 고발자 앞에서 침묵하심      | 마 26:63, 27:12; 막 14:61, 15:5; 눅 23:9;<br>요 19:9; 벧전 2:23 잠잠히 침묵하신 예수                 |
| 이사야 53:8   | 생명에서 끊어짐          | 마 27:50; 막 15:37; 눅 23:46; 요 19:18<br>십자가에서 돌아가심                                      |
| 이사야 53:8   | 백성의 죄를 위해 메시아가 죽음 | 행 2:22-23, 5:30-31. 정하신 대로 죽음                                                         |
| 이사야 53:9   | 부유한 자의 무덤에 묻히심    | 마 27:57-61; 막 15:42-47; 눅 23:50-55;<br>요 19:38-42.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
| 이사야 53:9   | 메시아에게는 거짓이 없음     | 벧전 2:22 범죄나 거짓이 없음                                                                    |
| 이사야 53:10  |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들이 죽음 | 마 26:39; 눅 22:42; 요 12:27; 행 2:23<br>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무법자의 손을 빌림                          |
| 이사야 53:10  | 메시아의 죽음은 속죄제물     | 요 1:29; 고전 5:7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
| 이사야 53:10  | 메시아는 자신의 씨를 보게 됨  | 마 28:8-10, 16-20; 막 16:9-18;<br>눅 24:13-49; 요 20:11-21:23; 행 1:1-8<br>제자들의 공동체가 다시 생김 |
| 이사야 53:10  | 메시아는 오래 살게 됨      | 막 16:19; 눅 24:51; 행 1:9, 5:31;<br>고전 15:3-8, 20-28 부활 이후 승천하심                         |
| 이사야 53:11  | 메시아의 만족           | 히브리서 1:1-4.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
| 이사야 53:11  | 좋은 죄를 짊어지고 의인을 세움 | 롬 3:21-26; 5:17-21; 고후 5:21<br>죄인을 의인으로 세움                                            |
| 이사야 53:12  |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미래     | 히 1:1-4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
| 이사야 53:12  | 메시아의 자발적 죽음       | 마 20:28; 막 10:45; 요 10:11-18.<br>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                                       |
| 이사야 53:12  | 메시아가 범죄자들과 함께함    | 눅 22:37, 23:32-43.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                                                        |
| 이사야 53:12  | 메시아는 죄를 짊어지고 중보하심 | 눅 23:34. 저희의 죄를 사하소서<br>행 5:31; 히 7:25, 9:24; 롬 8:34.<br>보좌 우편에서 간구함                  |

### 부록3 이사야서에서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여겨지는 구절

#### 예언의 내용

#### 재림으로 성취될 내용

- 이사야 1:9 남은 자들(이사야에서 처음 언급되는 남은 자)
- 이사야 1:24-27 시온에 의로운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세워지고, 충실한 백성이 있을 것임
- 이사야 2:1-4 메시아께서 평화로운 왕국에서 시온, 곧 여호와의 산에서 통치하심
- 이사야 2:5-3:26 하나님께서 유다와 온 땅의 악인을 정결케 하시며 “그날에” 높임을 받으심
- 이사야 4:2-4 여호와의 가지, 거룩한 남은 자들, 시온산 위의 영광
- 이사야 6:11-13 성읍들이 황폐해짐과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라는 약속
- 이사야 8:9-22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위한 성소가 마련됨
- 이사야 9:1-7 의롭고 영원한 메시아(아들)의 통치
- 이사야 10:20-22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임
- 이사야 11:1-10 메시아와 그의 평화롭고 의로운 왕국
- 이사야 11:11-16 충실한 남은 자들의 귀환
- 이사야 12:1-6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에 대해 찬양함
- 이사야 13:6-16 “여호와의 날” 동안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 이사야 14:1-3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땅에 정착하게 됨
- 이사야 14:4-23 바벨론 왕(적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왕국 멸망
- 이사야 17:7-8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러러보게 됨
- 이사야 18:4-7 구스 백성이 시온산에 예물을 가져옴
- 이사야 19:1-17 애굽의 멸망
- 이사야 19:18-24 애굽이 구원을 받고, 앗수르와 이스라엘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함
- 이사야 21:1-10 바벨론의 몰락
- 이사야 24:1-23 하나님의 지상 심판
- 이사야 25:1-12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찬양
- 이사야 26:1-21 환난 중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부활에 대한 약속
- 이사야 27:1-13 이스라엘의 회복과 남은 자의 모임
- 이사야 28:14-29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와 이스라엘의 적그리스도와의 언약
- 이사야 29:1-24 아리엘(예루살렘)의 미래 축복과 징계
- 이사야 30:19-26 우상 제거와 땅의 회복
- 이사야 32:1-20 왕(메시아)의 의롭고 평화로운 통치
- 이사야 33:1-24 하나님의 미래 심판과 시온의 축복
- 이사야 34:1-15 시온의 원한을 갚으시는 여호와의 날
- 이사야 34:16-17 영원히 그 땅에 거할 자들
- 이사야 35:1-10 시온의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
- 이사야 40:1-2 메시아 왕국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주어짐
- 이사야 40:3-5 하나님을 위한 길이 준비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남(말라기 3:1; 4:5-6 참조)

이사야 40:9-11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 능력으로 오시며, 목자같이 백성을 돌보시는 메시아  
 이사야 40:31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힘을 얻게 됨  
 이사야 41:1 열방이 심판받음  
 이사야 41:2-5 메시아의 오심 (일부는 고레스로 해석)  
 이사야 41:8-16 하나님께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그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이김  
 이사야 41:17-20 메시아 왕국에서 자연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  
 이사야 42:1-4 메시아가 그의 미래 왕국에서 정의를 세우심  
 이사야 42:5-7 메시아가 빛이자 백성들과의 언약이 되심  
 이사야 42:10-13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전사로 오시는 여호와께 찬양  
 이사야 43:1-2 남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 보호받음  
 이사야 43:3-4 남은 자들을 위해 다른 민족들이 대속물로 바쳐짐  
 이사야 43:5-7 남은 자들이 모든 나라에서 모여 옴  
 이사야 43:14 바벨론이 멸망함  
 이사야 43:19-21 광야와 사막이 물러지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함  
 이사야 44:1-5 자연이 새로워지고,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 속하게 됨  
 이사야 44:21-23 남은 자들의 구속  
 이사야 45:8 땅이 의를 받아들임  
 이사야 45:22-25 남은 자들이 의롭게 되고, 메시아 안에서 영광을 누림  
 이사야 46:13 시온을 위한 메시아의 구원, 이스라엘을 위한 영광  
 이사야 49:2 메시아의 입은 날카로운 칼 같음  
 이사야 49:5-6 메시아께서 남은 자를 모으고 회복시키심  
 이사야 49:6 메시아는 민족들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심  
 이사야 49:7 열왕과 고관들이 메시아를 경배함  
 이사야 49:8 메시아가 그의 백성과 언약이 되어, 남은 자를 위해 땅을 회복하심  
 이사야 49:9-13 남은 자들이 안전하게 시온으로 돌아옴  
 이사야 49:14-26 시온이 다시 거주지가 됨, 이방인들이 남은 자들을 시온으로 데려옴.  
 메시아께서 남은 자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심  
 이사야 51:1-5 메시아 왕국의 축복들  
 이사야 51:6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메시아의 구원과 의는 영원함  
 이사야 51:7-11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 남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옴  
 이사야 51:12-23 남은 자들이 환난에서 해방되고,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  
 이사야 52:1-3 거룩한 자들이 시온에 거하게 됨  
 이사야 52:7-12 메시아께서 회복하시고 시온에서 통치하심  
 이사야 52:13 메시아의 높임과 영광  
 이사야 52:15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메시아 앞에서 침묵함  
 이사야 53:10 메시아의 희생적 사역에 대한 보상  
 이사야 53:12 메시아의 희생에 따른 보상과 높임  
 이사야 54:1-6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 땅의 확장

이사야 54:7-17 메시아의 사랑과 보호가 왕국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함  
이사야 55:1-13 메시아 왕국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사야 56:1-9 메시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왕국의 축복  
이사야 59:17-21 메시아께서 보복의 날에 오심. 구속자로서 시온에 오심  
이사야 60:1-9 메시아 왕국의 축복들. 남은 자의 자손들이 시온으로 인도됨  
이사야 60:10-22 왕국 안에서의 평화와 안전, 남은 자들이 의롭게 됨  
이사야 61:2-3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심  
이사야 61:4-9 남은 자들이 땅에서 갑절의 몫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림  
이사야 61:10-11 남은 자들이 메시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함  
이사야 62:1-5 시온이 여호와께 기쁨이 됨

(이상)

# 어떻게 예레미야서를 읽을 것인가?



김선익 목사

포월튼비치 한인제일장로교회

## 1. 서론

구약성서를 이루는 39권의 책 가운데서, 시편과 이사야 다음으로 장수가 많은 책이 예레미야서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성서로 보면, 예레미야서의 낱말 수는 21,819로 이사야서의 낱말 수 16,930보다 29% 정도 많고, 심지어 시편의 낱말 수 19,531보다 12% 정도 더 많아서(THAT II 541-542), 구약성서 가운데 가장 긴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다. 또한 예레미야서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어 구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기도 하다.

예레미야의 공동체는 본문에 드러난 대로 불의한 제의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 그러나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특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의 공동체는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다른 예언자들의 말도 함께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말이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해야만 했다. 예레미야는 위기에 처한 그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공동체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공동체는 멸망에 이른다. 그들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최초의 전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 된 말씀과 그 시대에 나타난 위기와 이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 공동체로부터 받은 예레미야의 고난과 공동체의 멸망에 이르는 과정이 전승이 되어,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포로기의 공동체에게 전해진 것이다.

## 2. 예레미야서의 전체구조

|                  |        |
|------------------|--------|
| A. 도입 - 예레미야의 소명 | 1장     |
| B. 하나님의 백성 심판    | 2-25장  |
| C. 예레미야의 수난기     | 26-29장 |
| D. 하나님의 백성 구원    | 30-35장 |
| C' 예레미야의 수난기     | 36-45장 |
| B.' 이방 백성 심판     | 46-51장 |
| A'. 종결 - 역사부록    | 52장    |

- I. 서론 - 예레미야의 소명 (1장)
- II. 예레미야의 예언 - 하나님의 백성 심판 (2-25장)
  - A. 회개하라 (2:1-4:4)
  - B. 북방에서 오는 적 (4:5-6:30)
  - C. 성전설교 (7:1-8:3)
  - D. 예레미야의 탄식 (8:4-10:25)
  - E. 계약의 중보자 (11:1-20:18)
    - 1. 언약을 깨뜨린 백성 (11:1-17)
    - 2.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 (11:18-12:17)
    - 3. 허리띠/포도주병 (13:1-27)



4. 가뭄 (14:1-15:21)
5. 독신생활 (16:1-17:27)
6. 토기장이와 진흙 (18:1-23)
7. 깨진 오지병 (19:1-20:18)
- F. 유다 지도자들을 향한 신탁 (21-24장)
- G. 예레미야 사역의 요약 (25장)
  1. 심판 선포의 시기 (25:1-2)
  2.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사역과 결과 (25:3-7)
  3. 심판으로서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 선언 (25:8-11)
  4. 바벨론과 열방의 심판 (25:12-38)
- III. 예레미야의 수난 I (26-29장)
  - A. 거짓 예언을 고하는 자들과의 갈등 (26-29장)
    1.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26장)
    2. 시드기야 시대의 예레미야의 예언 (27-29장)
      - a.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 (27장)
        - ① 열왕들에게 (1-11절)
        - ② 시드기야에게 (12-15절)
        - ③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16-22절)
      - b. 예레미야와 하나냐 (28장)
      - c.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29장) -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 허락이다.
- IV. 구원신탁 (30-35장)
  - A.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구원의 말씀 (30-33장)
    1. 시가부분 (30-31장)
      - a. 새 언약 (31:31-34)
    2. 산문부분 (32-33장)
  - B. 왕과 백성에 대한 마지막 경고 (34-35장)
    1. 성의 멸망과 바벨론 왕에 넘겨진 권세 (34장)
    2. 광야에서의 신앙 전승을 지키는 레갑족속 (35장)
- V. 예레미야의 수난 II
  - A. 두루마리를 태우는 왕과 다시 말씀을 쓰는 예레미야 (36장)
  - B. 예루살렘의 멸망 시기에 나타나는 백성들의 반응과 예레미야 (37-45장)
    1. 시드기야 (37-39장)
    2. 애굽으로 가는 백성과 예레미야 (40-45장)
- VI. 열방에 대한 신탁과 결론 (46-51장)
  - A. 애굽에 대한 신탁 (46:1-26)
  - B. 이스라엘에 대한 신탁 (46:27-28) - 아주 멀하는 것이 아니다! - 구원의 약속
  - C. 블레셋에 대한 신탁 (47장)
  - D. 모압에 대한 신탁 (48장)
  - E. 암몬에 대한 신탁 (49:1-6))
  - F. 에돔에 대한 신탁 (49:7-22)
  - G. 다메섹에 대한 신탁 (49:23-27)
  - H. 게달과 하술에 대한 신탁 (49:28-33)
  - I. 엘람에 대한 신탁 (49:34-39)
  - J. 바벨론에 대한 신탁 (50:1-16)
  - K. 이스라엘에 대한 신탁 (50:17-20)
  - L. 바벨론에 대한 신탁 (50:21-51:64)
- VII. 결론 - 시드기야의 죽음 (52장)

### 3. 시대별로 정리한 예레미야서의 기록<sup>1</sup>

| 연대     | 예레미야       | 역사적 사건                                    |         |
|--------|------------|-------------------------------------------|---------|
| 628(7) | 1:2        | 예레미야의 예언활동 시작                             |         |
| 609    | 22:10-12   | 여호아하스가 이집트로 잡혀감                           |         |
| 605    | 25:1-15    | 이집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함                   | 여호야김 4년 |
|        | 36:1-8     |                                           |         |
|        | 46:2ff     |                                           |         |
|        | 47:2ff     |                                           |         |
| 604    | 36:9ff     | 아스글론의 멸망과 함께 유다에서는 대금식일이 선포됨              | 여호야김 5년 |
| 601    | 46:13ff    |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집트가 멸망하리라는 예언                 |         |
| 599    | 49:28      |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들이 멸망하리라는 예언        |         |
|        | 47:1       |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막돌과 가자를 점령함                   |         |
| 598    | 35:11      | 레갑조속이 예루살렘 성안에 거주                         |         |
|        | 52:28      | 바벨론 역대기에는 이 해에 “유다의 도시”를 점령하고 왕을 바꾸었다고 기록 |         |
| 597(?) | 22:24-30   | 여호야긴의 운명에 대한 예언                           |         |
|        | (52:30-34) | 여호야긴이 옥에서 석방되었다는 기록                       |         |
| 596    | 49:34      | 엘람에 대한 예언(느부갓네살의 9 <sup>th</sup> 전쟁)      |         |
| 593(4) | 27         |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희망                            |         |
| 28?    | 34:8-22    | 종들의 해방                                    | 예루살렘 포위 |
|        | 37         | 갈대아인들의 포위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됨                     |         |
|        | 37:1-21    | 예레미야의 감금                                  |         |
|        | 38:1-13    |                                           |         |
|        | 32:1-5     |                                           |         |
| 587(6) | 39:1-40:6  | 예루살렘의 멸망                                  | 시드기야 9년 |
| 582(?) | 41:1-3     | 그달라의 살해사건; 이집트로의 피난                       |         |

### 4.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

예레미야서 1 장 2 절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제 13 년(주전 626 년)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에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39-44 장에 따르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뒤 바벨론이 유다 땅에 세운 총독 그다라가 암살되자 이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사람들에 의해 억지로 이집트로 끌려갔고 거기서도 몇 차례에 걸쳐 동포들에게 예언한다. 그 이후 예레미야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는다. 이리하여,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 전 40 년 전부터 멸망 직후까지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다. 주전 8 세기 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곧바로 남왕국 유다까지 압박해 오던 앗수르는, 유다 왕 므낫세 시대에 이집트를 점령함으로써 그 위력이 정점이 이르렀으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지 10 년쯤 되는 주전 630 년에서 627 년 사이에 앗수르바니팔이 죽은 뒤로는 급격히 쇠퇴하여, 612 년에는 마침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게 니느웨를 내주게 된다. 이처럼 서북 아시아에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틈을 타서 남왕국 유다는 요시야 왕의 지도를 받아 안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옛 북왕국의 땅을 찾으려고 애쓴 것으로 보인다 (왕하 22:1-23:28). 그렇지만, 군대를 끌고 북진해 오던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게 요시야는 609 년에 므깃도에서 목숨을 잃고, 유다 귀족들이 왕으로 세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바로 느고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사로잡아가고, 그 대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유다 왕으로 삼는다

<sup>1</sup> 김영진, 느비임, p. 165 참조

(23:29-34). 이리하여, 유다는 이제 이집트의 손아귀에 들어간 듯 했는데, 겨우 네 해가 지난 605년에 시리아의 갈그미스에서 바로 느고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대패함으로써 (렘 46:2) 여호야קים은 603년부터 바벨론을 섬기게 된다 (Herrmann 1990: 18). 그런데, 삼 년 뒤에 여호야קים이 바벨론을 배반하자 바벨론 군대가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아마도 예루살렘이 포위된 가운데 598년에 죽은) 여호야קים의 아들로 왕이 된 여호야킨과 유다 지도층들을 느부갓네살이 597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 대신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는다(왕하 24 장). 시드기야도 601년 바벨론의 이집트 원정이 성공적이지 못한 채 끝나자 급속한 사태의 전환을 예언하는 잘못된 예언자들을 비롯한, 나라 안의 반(反) 바벨론 세력들의 후원을 받아, 594/3년에 이집트에 새 왕이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삼아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꾀하는(렘 27-28 장 참고) 등으로 애쓰다가 마침내 바벨론을 배반하였다. 이에 바벨론 군대가 589년에 다시 유다로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588년에 잠시 이집트의 출병으로 잠시 포위가 풀렸으나 (렘 37:5), 587년에 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왕하 25 장; 렘 39 장; 52 장).

## 예레미야 1 장

**1) 예레미야의 사역 배경(1:1-3)** -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예레미야(제사장 가문의 힐기야의 아들)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하신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여호와께서 아몬의 아들 요시아 제 13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קים 유다를 다스릴 때에도 그에게 말씀하셨고,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11년간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 해 제 5월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2) 예레미야의 소명(1:4-10)** -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네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아 말씀의 전달자로 살았던 이의 삶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은 "선택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너무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 같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네게 무슨 말을 명하든지 너는 그대로 전하라!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니라(7-8)."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뻗쳐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둘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온 나라와 민족들 위에 세울 것이다. 나는 네가 이제부터 그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세우며, 심게 할 것이니라(9-10)."

## 3) 두 가지 환상과 상징 (1:11-19)

**살구나무 (1:11-12)** -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후에 두 가지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첫째 환상을 보여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고 물으셨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고 대답했다(11).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이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12)."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사케드"라고 하고, 지킨다는 말은 "소케드"이다. 여호와께서는 비슷한 소리를 가진 살구나무를 통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언어 유희'를 통해 보여주셨다.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 (1:13-16)** - 여호와께서 그 후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둘째 환상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물이 끓고 있는 가마솥'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북쪽 나라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성문 입구에 보좌를 놓고,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며, 유다의 모든 성벽과 성을 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17-19)** -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과 그 뜻을 보여주신 후에, 그에게 허리띠를 매고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전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백성들 앞에 굳센 요새와, 쇠기둥과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셔서, 유대의 왕들과 장관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백성들과 담대히 맞서게 하시고, 비록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예레미야와 맞서 싸우겠지만, 그들은 결코 예레미야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편에서 그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 예레미야 2~25장

### 1. 하나님 백성의 심판

**1) 회개하라 (2:1-4:4)** - 유다는 여호와께 대한 신의를 저버렸으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 그럼에도 그들을 다시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중대한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신다. 첫째로 그들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샘인 하나님을 버렸고, 둘째로 그들은 물이 나오거나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우물을 팅다는 것이다 (2:9-13). 이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과 앗수르를 의지하는 죄를 범한 것을 말한다 (2:14-16). 또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2:20-30) 전한 예레미야는 자기 시대의 유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한다 (2:31-37). 예레미야는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행음한 여인으로 표현한다 (3:1-5).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음을 탄식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돌이키려고, 앗수르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셨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다는 이러한 일을 보고 경계를 받고 죄에서 돌아서야만 했으나,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3:6-10).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은 진실하지 못해서 멸망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사악한 유다보다 나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미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영원히 노를 품지는 않으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의 헛된 신들을 섬겼으며, 산당이 있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들을 주어, 그들이 지식과 명철의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여, 이 땅에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면 그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와 언약궤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 부르고,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3:11-18).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 같이 하나님을 속였으므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다시 한 번 회개를 촉구하신다 (3:19-4:2).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다시는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지니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여! 이제라도 네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할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 악한 행실로 인해 내 분노가 너희 중에 불같이 퍼질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니라!" (4:3-4)

**2) 북방에서 오는 적 (4:5-6:30)** - 여호와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유다는 듣지 않았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범죄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 유다의 심판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는 크게 슬퍼하며 다음과 같이 애도했다. "아 고통스럽고 고통스럽도다. 내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니, 내 가슴이 너무 아프도다. 심장이 두근거려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이는 내가 직접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전쟁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 온 나라가 파괴되었도다. 저희의 장막이 갑자기 무너졌고, 휘장이 순식간에 찢어지는구나! 언제까지 저 전쟁의 깃발을 보며, 언제까지 전쟁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인가?(4:19-21)" 그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은 어리석도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식들로서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좋은 일은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므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22)." 또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일 때문에 땅이 크게 부르짖을 것이며,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한 번 말했으므로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내가 계획을 했으므로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27-30)."

이어지는 예레미야 5-6장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루살렘은 모두가 타락해서 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고, 두루 살피며, 성의 광장을 모두 뒤져서 정직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셨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만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이 성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1, 참고 에스겔 22:30).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호와와 살아계심으로 맹세했지만, 그 맹세는 거짓말이었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으며, 여호와와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여러 번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5:1-6). 심지어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해도 여호와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실 것이므로 우리에게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전쟁이나 굶주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공공연히 말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고하는 재앙이 결코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5:12-13).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이 불이 되게 하시고, 유다 백성은 장작이 되어서, 선지자가 한 말이 불이 되어 장작처럼 유다 백성들을 태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얼마 있지 않아서 먼 곳에서 한 나라를 데려와서 유다를 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의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 남의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종노릇하며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5:14-19)."

하나님께서 5장에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선할 길을 찾아보라고 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거역하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북방의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실 것을 선고하신다 (6장).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크게 탄식하며,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하겠느냐?고 말한다. 그는 누가 자신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그의 탄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서 선지자가 전하는 경고를 듣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와 말씀을 비웃었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싫어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와 분노가 가득 찬 것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다(6:10). 그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과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실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아무리 제련을 해도 헛될 뿐이로다. 도무지 악한 것이 내 백성에게서 없어질 줄을 모르도다. 그러므로 장차 내 백성은 '버림받은 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6:27-31).

**3) 성전 설교 (7:1-8:3)** - 예레미야는 결코 여호야김에게 아첨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호야김 왕이 통치를 시작하던 바로 그 해에 선지자는 성전 건물에서 유명한 "성전 설교"를 했다(7장, 26장).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어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었다(7:4, 8).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윤리적인 악과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7:8-1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그들이 살 길은 공의를 행하고 악한 자를 압제하는 일을 그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다 (7:3, 5-7).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과거에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멸망했던 일을 상기시켜 주셨다. 엘리 제사장 때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인들에게 패배하고, 거룩한 언약궤 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그 후에 성막이 있던 실로는 폐허가 되고 말았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일을 기억해야만 했다. 비록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회개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역시 실로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7:12-14).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 이스라엘처럼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15).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심판을 결정하신 후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유대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해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은 심판을 기다려야만 한다 (16-20).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청중들 가운데 큰 소동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으나 무리들 중에 있던 소수의 장로들이 1 세기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함으로 그 소동이 진정될 수 있었다 (미 3:12). 만일 이때에 이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하지 않고, 또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던 아히감의 중재를 하지 않았다면 (26:24) 예레미야는 성난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실제로 예레미야와는 달리 선지자 우리야는 무리들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26:20-23).

**4) 예레미야의 탄식 (8:4-10:25)** -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릇된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은 그릇된 길로 가되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그들이

거짓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 보았지만, 그들은 정직한 말을 하지 않았으며, 악한 짓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을 알지 못한다 (4-7).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돈에 욕심을 내고, 심지어 예언자와 제사장들조차 모두 다 거짓을 행하였다.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않으며,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를 외쳤다. 예레미야는 죄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다 (9:3-11).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유다에 이러한 일을 깨달을 만한 지혜자가 없었으며, 여호와와 가르침을 받고 이러한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12-1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곧 이 백성에게 쓴 음식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과 그 조상들이 모르는 낯선 나라들 가운데 흩어 놓을 것이라.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나의 칼은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초상집에서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 오너라. 사람을 보내어 그런 일에 익숙한 여자들을 불러 오너라. 그들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 큰 소리로 울라고 하여라.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하여라”고 말씀하신다 (15-18).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있는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을 자랑하라! 나는 이러한 자랑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다 (23-24).

10장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집을 향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외친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이상한 현상을 보고 두려워해도 너희는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를 해치지도 못하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신다고 선포하였다 (1-5).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와 뜻을 묻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들이 하는 일마다 성취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친 양 떼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것이라고 경고한다.

**5) 계약의 중보자 (11-20장), 언약을 깨뜨린 백성 (11:1-17)** - 언약을 깨뜨린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다(1-17). 왜냐하면 이제 유다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고, 여호와께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므로 더 이상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다.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 (11:18-12:17)** - 유대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아나돗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인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였다. 또한 평안을 외치던 선지자들도, 심판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공격하며, 그를 가리켜 멸망으로 이끄는 사기꾼이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 예레미야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아서, 그들이 꾸미는 음모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공정한 재판관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다. 예레미야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갈등이 되어,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더욱 더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말을 듣지 않는 그 나라를 완전히 뽑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하는 2가지 상징들 (13장), 베띠의 비유 (13:1-11)**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베띠를 사다가 허리에 띠고 그것이 물에 젖지 않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그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띠를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브랏으로 가서 바위 틈에 그 띠를 감추라고 지시하시고, 얼마 후에 다시 브랏으로 가서 숨겨둔 띠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셨다. 예레미야가 그 띠를 찾았을 때에 그 띠는 이미 썩어서 못쓰게 되어 버렸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였기에, 아무 쓸모 없는 이 베띠처럼 될 것이다”고 말씀하신다 (1-11).

**포도주 병의 비유 (12-27)** -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든 가축 부대는 포도주로 가득 차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유다 백성들은 “우리도 모든 가축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취하게 만들리라! 다윗의 보좌 위에 앉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들리라! 내가 그들로 서로 부딪혀 넘어지게 할 것이니, 아버지와 아들도 서로 부딪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12-14).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선포한다.

**가뭄에 대한 예언 (14-15장)** - 하나님은 가뭄과 전쟁과 기근으로 유다를 치실 것을 결정하시고, 그 때에 일어날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 땅에 가뭄과 기근과 칼이 임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외친다. 그러나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부탁해도 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 낼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원수에게 넘겨주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잡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은 예언자에게 괴로움과 상처가 되었다. 예레미야는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울부짖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의 독신생활 (16-17장)** -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몇 가지 일을 금하셨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여 아들이나 딸을 낳는 일을 금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무서운 병으로 죽을 것이며, 그때에 그들을 위해 울어 줄 사람도 없고, 묻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 시체가 거름처럼 땅바닥에 버려질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 울거나 슬퍼하는 일을 금하셨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서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들이셨기 때문에,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며, 그들을 묻어 주거나 울어 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잔칫집에도 가서 먹고 마시는 일을 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기에, 그들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갈 것이고, 그 곳에서 다른 신들을 밤낮으로 섬기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요새며, 재앙의 때에 피할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17장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행복과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특별하게 다룬다. **17:24-27에서처럼 안식일 문제를 독립된 주제로 삼아 중요하게 다룬 경우는 다른 예언서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 (18장)** -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토기장이처럼 주권을 가지고 임의대로 열방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질그릇처럼 깨뜨리실 것이다.

**깨어진 오지병 (19-20장)**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 한 가지 지시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에게 가서 오지병을 하나 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백성과 제사장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힌놈의 골짜기로 가라고 하셨다(1-2). 이 힌놈의 골짜기는 그들이 자녀를 제물로 드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곳이었다. 유다 왕들은 이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차게했다. 그들은 바알 산당들을 세워놓고,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목전에서 오지병을 깨뜨리라고 하신다. 오지병이 한 번 깨지면 합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과 이 성을 오지병을 깨듯이 깨뜨려 버리실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제사장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베냐민 윗문'에 있던 형틀에 묶어버렸다. 바스홀은 다음 날 예레미야를 형틀에서 풀어 주었으나, 예레미야는 바스홀에게 이렇게 예언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홀이라 하지 않으시고, '마굴밋사빕'이라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라! 내가 이제 곧 너와 네 모든 친구들을 두려움에 넘겨 줄 것이다. 너는 네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유다 백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 줄 것이다.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갈 것이며,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백성을 칼로 죽일 것이다. 또 내가 이 성의 모든 재산을 그 원수들에게 주고,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여러 가지 물건과 보물들, 그리고 유다 왕의 보물을 원수들에게 줄 것이.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바스홀아, 그때에 너와 네 집안의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는 그 곳에서 죽어

문히게 될 것인데, 너만 아니라, 네 거짓 예언을 들었던 네 친구들도 바벨론에서 죽어서, 그 곳에 문히게 될 것이다(1-6).'' 20:7-18은 "예레미야의 고백"의 마지막 본문으로 알려져 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예언자가 항의하는 말인 7절에서 시작하여, 예언자 자신이 안팎으로 여호와와 박해자들 때문에 겪는 곤경 상황을 묘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을 박해자들이 자신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다.

## 6) 유다 지도자들을 향한 신탁 (21-24장)

**여호아하스** - 요시야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아하스(or 살룸(22:11))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종교 개혁 정책을 계승하지 않았다. 여호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된 지 얼마 후에, 바로 느고는 유다에 과중한 공물을 요구했다 (왕하 23:31-33).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그러자 이집트 왕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유배시키고, 유다를 이집트의 부속 국가로 삼았다.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 대신에 여호야קים을 부속 국가의 왕으로 앉혔다 (대하 36:2,5). 이로 인해 요시야가 죽은 지 3개월 만에 유다는 독립을 잃고 말았다 (렘 22:10-12).

**여호야קים과 여호야긴 때에 주어진 예언** - 선지자들은 전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여호야קים이 다스렸던 시기에는 (주전 609-598년) 유다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났다. 예레미야는 그때에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25:1,8-11,15-25).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앗시리아와 이집트의 연합군을 전멸시켰다. 이때부터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46:2, 대하 35:20). 이 사건으로 인해 앗시리아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으며, 이집트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바벨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계속해서 진군하여 블레셋을 점령했으며 (45:5-7), 유다에게도 바벨론의 부속국가가 될 것을 강요했다 (주전 603년, 왕하 24:1). 그러나 여호야קים은 바벨론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호야קים에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민족주의 정신을 가진 유대의 지도자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유대 백성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실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언약과 성전과 왕권이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1-8:3, 26:1-24). 그러나 유대 백성과 지도자들은 "여호와와 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다 (7:4).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을 마술적으로 믿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권고했다. 후에 예레미야는 바룩을 지도자들에게 보내서 자신이 지난 23년 동안 전하고 기록한 말씀(36:2)을 낭독하게 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들이 행한 악에서 돌아설 것을 권고했다 (36:3). 바룩은 예레미야의 지시대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낭독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언을 듣고, 바룩을 여호야김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룩은 여호야김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낭독했다. 그러자 여호야김은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분노하여 그 기록을 불에 태워버렸다 (36:11-24).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행위를 보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와 여호야김에 대해 전보다 더 심한 심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지시하셨다(36:29-31).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다 (36:26). 그러나 소수의 유력한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26:24). 이 시기는 예레미야에게 견디기 힘든 시기였다. 그는 박해를 받았으며 (12:6, 15:15-18), 음모의 표적이 되었고 (11:18-23, 18:18), 매를 맞고 투옥되기도 했다 (20:2). 그는 대중의 반감과 적개심을 참아내야만 했다 (26:10-11). 이러한 고난의 사건들은 예레미야 입에서 탄식과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27:2-11) 무시하고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으며(주전 598년), 바벨론 군대가 그를 진압하기 위해 쳐들어왔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여호야김은 죽고 말았다 (22:18-19, 36:30). 여호야김이 죽은 후(주전 597년)에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왕하 24:8). 그 때에 바벨론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여 성을 공격하려고 보루를 쌓았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 점령되었고, 성전을 그들에 의해 약탈당했다.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왕과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이로 인해 유다에 대해 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다.

**시드기야 (21, 24, 28-29, 34장)** -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요시야의 아들이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부속왕으로 임명했다 (주전 597년, 참고 왕하 24:17-18). 시드기야는 (주전 597-586년) 친이집트 파와, 하나냐 (28:1-4)와 스마야 (29:24-28)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하나냐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 신속하게 돌아오고, 성전 보물들도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을 부정하고 유다가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지 말고, 복종하도록 권고했다 (21:1-7, 37:17-21, 38:7-28).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절박한 재난에 대해서 예고했다 (21:1-10, 34:1-22, 37:3-10, 38:14-23). 그러므로 시드기야는 그를 바벨론의 편에 선 반역자로 취급했다 (37:13, 51:59-64). 그는 토굴과 (37:16), 구덩이 (38:1-13)에 던져졌으며,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했다 (37:21).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충고를 거부하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집트의 왕 호브라 (주전 589-570)의 편에 섰다. 그리고 마침내 시드기야는 주전 589년에 바벨론에 반기를 들고 말았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을 소유한 왕이었지만, 꾀대가 없어서 주위 사람들의 말에 쉽사리 동요되었으며,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신조대로 강력히 밀고 나가지를 못하였다. 예레미야는 지도자들이 교체됨으로써 다시 한 번 대중들에게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더우기 그의 예언들이 모두 옳았다는 것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새 왕은 예레미야가 충고하는 바들을 기꺼이 들으려고 하였지만,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는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는 용기가 없는 왕이었다. 바벨론 왕의 공격시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항복하는 자들만 살 것이라고 하였다(21장).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백성들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요나단의 토굴 속에 가두어 버렸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그를 은밀히 불러내어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으며, 예레미야를 토굴로 보내지 않고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두고 그에게 떡을 공급해 주었다(37장). 그러나 다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여 백성들을 약하게 한다고 고발하여 다시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두었으나, 이를 들은 에벳멜렛이 다시 예레미야를 구원해 내었다. 그후에 시드기야는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다. 이때에 예레미야는 다시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하였다(38장).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전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노예들을 해방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다시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그것을 원위치 시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시드기야와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유보했던 심판을 다시 시행하여 이 나라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하셨다 (34장).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시드기야 제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모든 귀인들이 사로 잡혀가게 되었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인정하여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 유다는 이제 화려했던 그 옛날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지도급 인사들과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고, 그대로 남아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경험이 부족한 데다 사물을 보는 식견마저 좁고 유치하였다. 예레미야는 도저히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성전 근처에 놓여 있는 "잘 익은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 (24장).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이는 느부갓네 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의미하였다. 예레미야는 장차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적절한 시기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유다로 귀환시켜서 또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무화과 열매들"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시드기야와 그 땅에 남은 자들을 상징하였다. 여호와께는 앞으로 쫓아내어 다른 민족들의 손에 환난과 수치를 당케 하실 것이다.

**7) 예레미야 사역의 요약 (25장) -** 유다 왕 요시아 13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의 예레미야 사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열조를 따라 다른 신을 좇아 섬기고 숭배하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지런히 말하였으나,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은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폐허가 되고, 그들은 칠십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칠십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 예레미야 26-29장

**거짓 예언을 고하는 자들과의 갈등 (26-29장)** - 26장의 설교는 7장과 비교된다. 둘 다 여호야김 왕 즉위 초기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행한 설교지만, 강조점은 다르다. **7장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자체만을 전하고 있는 반면, 26장은 이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강조한다.** 7장과 26장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으면 서로를 통하여 모호한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차적 반응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 멸망을 예언했던 미가의 예를 들어 살려주었다. 대신 예레미야처럼 예언했던 우리야는 죽임을 당하고 만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실 것 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었다. 27-29장은 거짓을 고하는 예언자들과의 갈등을 다루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씀을 증거한다. 1) 이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 2)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는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 3)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 28장은 그러한 예레미야에 대한 거짓을 고한 예언자들의 반격으로 시작된다. 시드기야가 즉위한지 오래지 아니하여 자칭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 말은 거짓이며 포로된 유다 백성은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28장),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는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 하였고, 하나냐는 그 해 칠 월에 죽는다. 이 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그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29:1-10). 그렇지만 그 상황은 완전히 호전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앞으로 그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었기 때문이며,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므로, 사는 동안에는 그 곳에 정착하여 살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였다 (29장).

## 예레미야 30-52장

### 1. 구원신약 (30-33장)

이 부분은 30-31장의 시가부분과 32-33장의 산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30장은 갑자기 시가 형태로 된 신탁들의 모음이 나타남으로 이전 이야기들(26-29장)과 장르를 달리한다. 32-33장은 다시 설화 형태를 취하지만, 30-31장에서 다루는 회복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설화로서 시드기야 시대 이후로 다시 멸망의 역사를 다루는 34장 이하와는 그 주제가 구별된다.

**1) 새 언약 (30장)** -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에서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때에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일으킬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30장). 하나님은 그 날이 오면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리고, 그들을 묶은 사슬을 끊어 버릴 것이며, 앞으로는 다른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인 야곱과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하신다. 이 백성은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아무도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며,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다. 그 때에는 야곱 백성의 장막이 회복되고, 폐허의 언덕 위에 성이 다시 세워질 것이며, 왕궁이 제자리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며, 그들에게서 웃음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자녀를 주어 그들의 수가 적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기에,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은 다음과 같다. "보라! 한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 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언약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내가 그 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나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둘 것이며,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새겨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각 사람은 자기 이웃과 형제들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31-34)."그때에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와 낮에는 해를 주어 빛을 비추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지정하여 빛을 비추게 하였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가 나게 하였다. 나 여호와 앞에서 이러한 자연 법칙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항상 나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35-36)."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위로 하늘을, 그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찢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일로 인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보라!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나 여호와를 위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측량하는 줄이 갈렙 언덕까지 곧게 이어지고 고아 쪽으로 꺾어지게 될 것이다.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서 동쪽의 '말 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밭이 여호와의 거룩한 땅이 되고, 다시 무너지거나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37-4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1) "날이 이르리니"라는 표현은 새 언약의 성취가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을 암시한다. 2) 새 언약은 유다 집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과도 함께 맺은 것이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을 전제로 하며, 개인이 아닌, 나라를 구성하는 집단과 맺고 있는 것이다. 3)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연속성이 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기본은 옛 언약과 다름이 없다. 4) 새 언약은 출애굽 시 맺었던 옛 언약과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하는 백성들이 이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즉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백성의 무능을 문제 삼는다. 즉 새 언약이 할 일은 죄로 인하여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수행된다.

**2) 새 이스라엘 (31장)** - 장차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인데, 이 언약은 출애굽 때에 세웠던 옛언약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며,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이 천지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31장). 31:1-14은 "다시"라는 말의 반복을 통하여 회복을 묘사하고, 땅 끝에서부터 그 백성을 모으며, 에브라임과 시온의 구원을 묘사하면서, 회복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한다. 31:15절 이하는 북이스라엘의 포로와 귀환의 예언에 사용된 것이 남유다의 귀환에 다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라헬이 북왕국의 시조인 요셉의 어머니로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포로에 대한 아픔을 노래한다. 특히 하나님의 회복사건과 새 언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회개"의 주도적인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3) 포로 후에 회복될 유다와 다윗의 언약 (32-33장)** - 32장에서는 예레미야 자신이 행동의 주인공이 되며, 예레미야의 상징행위가 예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시드기야왕 제 10년,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주관한 지 18년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유다 왕궁의 경호대 뜰에 갇히고 말았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숙부인 하나넬의 밭을 사라고 지시하셨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산 후에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부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호와께서 "어찌해서 곧 멸망하게 될 나라의 땅을 사라고 하시는지" 물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32장). 장차 이 땅이 회복되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밭을 사게 될 것의 상징 행동으로 예레미야에게 그의 숙부 하나넬의 밭을 사라고 하신 것이다(13-15). 즉 여기서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에 의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그 성에 들어와 불을 질러서 성을 태워 버릴 때,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들의 집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다른 우상들에게 부어 드리는 전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분노케 한 그 집들과 그 우상들과 그 악한 짓들 불태우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 냈다. 그러나 보라! 이제 내가 그들을 쫓아 낸 모든 땅에서 불러 모아서 다시 이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참마음으로 나만을 경외하여 하고, 이로 인해 자신들뿐 아니라 그 자손들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절대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항상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주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것이며,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고 잘 자라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렸지만, 이제는 재앙을 내린 만큼 약속했던 모든 좋은 일들을 이룰 것이다(36-42)." 그때에 유다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땅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이다. 이 땅은 이제 바벨론 군사들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장차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돈을 주고 밭을 사며 문서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증인들도 세울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베냐민 땅 뿐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 지역과, 유다의 여러 마을과 산지 마을들과, 서쪽 구릉 지대의 마을들과, 유다 남쪽 네게브의 마을들에서도 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옛날처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43-44)."

하나님께서 여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1).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2-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막으려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4). '그들이 와서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웠지만, 내 분노와 진노로 인해서 이 성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내가 그들의 온갖 악한 짓을 인해 이 성을 버렸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장차 이 성의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고 다시 세워 주리라! 비록 그들이 내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죄를 씻어 줄 것이다. 그들이 악한 짓을 하고 내게서 등을 돌렸지만 용서해 주겠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칠 것이며, 그 곳에 사는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공경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푸는 좋은 일들을 그들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게 될 것이다(5-9).'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은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지금은 예루살렘 거리와 유다 마을들이 조용하다. 그 곳에서 사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장차 그 곳에 다시 사람들이 사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도 들리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감사의 표시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사랑은 영원하다.'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곳은 황폐하다. 그 모든 마을에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그때에는 목자들에게 양 떼를 쉬게 할 목초지가 생길 것이다. 산지 마을들과 구릉 지대의 마을들에서, 유다 남쪽 네게브의 마을들과 베냐민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다른 마을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 떼의 수를 셀 것이다.' 나 여호와와 말이다(10-13)."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선한 일을 이룰 날이 오면,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이 땅에서 옳고 의로운 일을 행할 것이고,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도 안전이 살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가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윗의 위를 통하여 임하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자연법칙과 비교하여 설명한다(14-26).

## 2. 왕과 백성에 대한 마지막 경고 (34-35장)

34장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바벨론 왕에게 이미 권세가 넘어간 사실을 반복한다(1-3). 그러므로 여레미야도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신다. 시드기야도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여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는 시드기야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목숨을 잃을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이미 전쟁을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상황은 덜 악화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 멸망이 눈앞에 이르자, 멸망을 피해 보자는 속셈으로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종으로 팔린 히브리 사람은 칠 년 만에 자유케 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려 한 것이다(신 15:12). 그러나 애굽의 진격으로 바벨론과의 전쟁이 소강상태에



농이자, 시드기야는 위기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히브리 종을 다시 복종시켜 노비로 삼게 하였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칼과 염병과 기근에 붙여, 참혹한 멸망을 선포하신다. 위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잡지 않고, 순간적인 모면을 시도한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은 철저한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왜 시드기야가 다시 정책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는지는 이스라엘 내에, 친 바벨론 세력과 친 애굽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음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친 애굽 세력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장은 다시 여호와김 시대로 돌아가는데, 예레미야서 10-20장에 나타났던 예레미야의 상징행위가 다시 나타난다.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을 찾아간다. 레갑 족속을 방문한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권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한다. 이는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포도주를 금하고, 장막에서 거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가나안 땅에 들으면서 정착생활을 할 수 있었던 레갑 족속은 왜 정착 생활을 거부하고, 장막 생활을 택하였는가? 그것은 레갑 족속들이 가나인의 삶의 방식은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심각하게 위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레갑 족속의 삶의 방식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도전적이었다. 특히 레갑 자손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말을 따라, 그러한 삶의 양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나답이 누구인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깬 예후를 도와 예후 왕조를 세운 사람이 아닌가?(왕하 10:15-16) 그런 개국 공신이 장막에서 생활을 한다(?) 이러한 레갑 자손의 순종의 삶의 모습은 불순종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과 정면으로 맞선다. 레갑 자손의 예는 순종과 준수한 명령의 내용을 강조하며, 자신의 정착생활의 풍요를 위해 가나안의 문화 우상 숭배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질타하는 상징행위로 사용된다.

### 3. 예레미야의 수난 II (36-45장)

**1) 두루마리는 태우는 왕과 다시 쓰는 예레미야 (36장)** -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는 바룩을 유다 지도자들에게 보내서 자신이 지난 23년 동안 전하고 기록한 말씀(36:2)을 낭독하게 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들이 행한 악에서 돌아설 것을 권고했다(36:3). 바룩은 예레미야의 지시대로 유다 지도자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낭독했다. 유다 지도자들은 그 예언을 듣고, 바룩을 여호야김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룩은 여호야김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낭독했다. 그러자 여호야김은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분노하여 그 기록을 불에 태워버렸다(36:11-24).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의 행위를 보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와 여호야김에 대해 전보다 더 심한 심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지시하셨다(36:29-31).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다(36:26). 그러나 소수의 유력한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26:24). 이 시기는 예레미야에게 견디기 힘든 시기였다. 이 본문을 통하여 인간의 강박함은 심판의 임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인간의 저항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고 영원히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드기야 (37-39장)** -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반역 소식을 듣고 즉시 군대를 예루살렘에 파견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에 이집트의 원조로 인해 바벨론의 포위는 잠시 중단되었다(37:5-8).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생각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잠시 후에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은 다시 돌아왔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주전 586년). 성전과 왕궁과 건물들은 폐허가 되었고, 바벨론인들에 의해 약탈 당했다. 바벨론 군사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했다. 그리고 그들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 소경을 만들고 그를 포로로 끌어갔다(39:1-7). 그때에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은 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3) 애굽으로 가는 백성과 예레미야 (40-45장)** - 바벨론의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해방시키고, 시드기야 대신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다랴가 바벨론 편에 서서 백성들을 인도하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자들이 그를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쳤다(40-41장). 백성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남아 있으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애굽으로 가면 바벨론 왕이 그들을 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치고 그들도 함께 멸망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다(42-43장).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고하셨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는 부인을 둔 남자와 그 곁에 섰던 모든 여인들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를 그친 날로부터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였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이라고 하셨다(44장). 45장은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애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고 하면서, 그의 슬픔과 괴로움을 토로한다. 특히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4개의 단어, ‘세우다’, ‘헐다’, ‘심다’, ‘뽑다’는 동사는 예레미야 24:6; 42:10에서는 이미 닥친 재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 가운데 쓰인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잘 대해주시던 대상을 벌하시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어, 45장의 상황이 아직 유다 멸망 이전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의 뜻을 거스르는 공동체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단락인 것과 동시에, 그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의 괴로움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다.

#### 4. 열방에 대한 신탁과 결론 (46-52장)

46:1은 46-51장의 표제라고 볼 수 있다. 유다 주변의 열국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

**1) 애굽(46장)** - 열방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나라는 애굽이다. 특히 바로노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2-12절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웃나라들에게 가장 위협적이었던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참패한 상황을 군사력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애굽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여 당분간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다. 특히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치게 될 것을 경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애굽은 심판을 당하지만, 46:27-28을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아주 멀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남은 자를 남기시겠다는 구원이 약속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블레셋(47장)** - 본문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일러주며, 이것은 애굽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세력을 막고 있었던 어떤 시점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침략국이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북방에서 일어나는 물로 인하여,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

**3) 모압(48장)** - 언급되는 각 도시들은 모압의 전 지역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상숭배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만이 아니라, 우상인 그모스를 섬겼지만, 모압도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자신들을 지키고 보살펴 주는 신으로 의지하고 섬겨온 바로 그 그모스 신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재난을 겪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모압의 심판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4)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술, 엘람(49장)** - 그 다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다. 이를 통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아래 움직이며, 크거나 작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는 오히려 그들이 가진 장점이 그들의 수치거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쓸모 없게 만드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바벨론 (50-51장)** -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죄와 열국의 죄를 징계하셨다. 바벨론은 유다와 열국들이 지은 죄를 징계하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막대기였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겸손과 자비로 유다와 열국을 징계해야 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첫째로 그는 교만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쟁 시에 열국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대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신 후에 교만하고 무자비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과 맞물리는 것이 바로 유다의 구원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의 날은 유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시는 날에 유다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유다는 그 동안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았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은 산과 언덕을 헤매고 다녔으며, 쉴 곳마저 잃어 버리고 말았다. 유다 백성들은 열국에 의해 유린을 당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러한 모독을 받는 것이라고 조롱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7-8). 하나님께서는 북쪽 땅의 여러 나라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바벨론에 맞서 진을 칠 것이며 마침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대적들이 바벨론의 재물을 빼앗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모두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7-10). 이는 바벨론이 여호와에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다(11-14).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 떼와 같았다. 처음에는 앗시리아 왕이 그들을 삼켰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뼈를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앗시리아 왕을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들이 살던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갈멜산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 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며, 유다의 죄를 찾아 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다(17-20). 50:21-34은 바벨론의 멸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도구로 쓰인 바벨론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바벨론이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다(2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을 치실 것이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에 유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는 안식이 사라질 것이다(30-34). 그때에 바벨론은 저주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 버릴 것이다(35-40).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때에 바벨론의 멸망 소식을 듣고 온 땅이 놀라게 될 것이다(41-46).

51장은 다시 구체적으로 바벨론 멸망과 유다의 구원을 언급한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멸망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바벨론과 그 백성을 치실 것이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하였고 그 땅을 죄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그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전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들린 금잔과 같았다. 세상 나라들은 그 잔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 버렸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하고 말았다. 이제 바벨론은 치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있던 열국 백성들은 그 곳을 떠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가 구름에 닿을 만큼 많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형벌도 하늘까지 이를 것이다(7-9).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메대의 왕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었다(11). 그때에 메대의 군사들은 바벨론 성벽을 향해 기를 높이 들고 경계를 강화하고 보초를 세우고 복병을 숨겨 둘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백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51:15이후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과 그들을 심판하실 여호와를 비교하고 있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참 신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만방에 알리실 것이라는 것이다. 전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고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을 죽였으나, 이제는 반대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 남은 유다 백성들은 서둘러서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 유다 백성들은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기억해야 한다. 전에 바벨론인들은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밟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유다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유린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모독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바벨론과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 온 땅에는 부상 당해서 신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성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우상이 아무 것도 아니며, 오직 자신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실 것이다(49-53).

51:59-64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내릴 모든 재앙을 한 권의 책에 기록했고, 그 책을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스라야에게 주었다. 왕의 관리였던 스라야는 시드기야가 4년에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 그 때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내릴 모든 재앙을 기록하고 그 책을 스라야에게 주었다. 그 때에 예레미야는 그 책을 주면서 스라야에게 다음과 같이 하도록 지시했다. 1) 바벨론에 도착하면 이 책을 모든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읽어줄 것. 2)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가르쳐 줄 것. 3)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책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고, 바벨론이 그 책과 같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 할 것.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복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교만해져서 여호와와 성전을 멸시했으며,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고, 또 정복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데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바벨론 우상이 아무 것도 아니며,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여호와를 경외해야 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 5. 결론 (52장)

예레미야 52장은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로 시작한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잘못된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한 여호야קים을 쫓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다. 이러한 그의 악행은 여호와와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다. 여호와께서는 마침내 시드기야 왕 때에 끝내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쫓으셨다 (1-2). **둘째로** 시드기야가 잘못된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것은 여호와와의 징계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와 친 애굽파의 말을 듣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 왕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진노한 바벨론 왕은 또 다시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느부갓네살은 성을 에워싸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흙 언덕을 성 둘레에 쌓았다.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리고 4월 9일이 되었을 때에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크게 굶주리게 되었다 (3-6).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말았다. 그 때에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들은 어두운 밤을 틈타서 성벽을 빠져나가 도망을 치고 말았다. 이때에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들은 왕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에 있는 길로 빠져 나가서 요단 골짜기 쪽으로 도망을 쳤다. 후에 바벨론 군사들은 유다 왕과 유다 군사들이 성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시드기야 왕을 추격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야 왕을 체포했다. 그 때에 시드기야의 온 군대는 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7-8).

바벨론 군사들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하여 하맛 땅 립나에 있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고, 그가 직접 시드기야를 심문했다. 바벨론 왕은 계속해서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배반한 시드기야에게 분노했으며,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배반하도록 촉구했던 유다의 모든 신하들도 죽여버렸다. 크게 노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 시드기야는 악행을 저지르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9-11).

느부갓네살 제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은 유다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했다.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불을 놓았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건물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왕의 경호대장이 지휘하는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은 백성 중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백성들, 그리고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백성들 중에서 일부를 남겨 두어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다 (12-16). 이때에 바벨론 군대는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다. 이때에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가지고 간 성전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1) 기둥, 놋받침대, 바다라고 부르는 큰 놋대야. 2) 성전에서 제사드릴 때에 사용하는 술, 부삽, 부집게, 접시, 모든 놋기구들. 3) 성전에 있는 화로, 대야, 술, 등잔대, 접시, 전제물을 바칠 때 쓰는 잔. 4) 순금이나 은으로 만든 모든 것들. 이때에 그들이 가져간 놋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가져간 것 중에는 놋기둥이 두 개 있었고, 놋으로 만든 큰 놋대야 하나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놋받침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17-23).

느부사라단은 유다에서 유대 백성들을 체포해서 립나에 있던 바벨론왕에게 끌고갔다. 1)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3명의 성전 문지기. 2) 사병을 거느리고 있던 내시 한 사람. 3) 성 안에 있던 왕의 가까운 참모들 7명. 4) 군대 장관의 서기관으로서 군사를 모으는 사람 1명. 5) 성 안에 있던 백성 60명 (24-26).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맛 땅 립나에서 그들을 모두 다 죽이고 말았다. 이는 그들이 계속해서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대적했기 때문에 느부갓네 살이 크게 진노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그들은 결국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말았다. 이때에 바벨론 왕이 3차례 전쟁을 통해 유다에서 사로잡아 간 유대 백성들은 모두 4600명이었다 (27-30). 1) 느부갓네살 7 년: 유대 백성 3,023명. 2) 느부갓네살 18년: 예루살렘 거민 832명. 3) 느부갓네살 23년: 유대 백성 745명.

시드기야와는 달리 이미 사로 잡혀 왔던 여호야킨은 바벨론에 사로 잡혀 있는 동안 회개하고 겸손해졌다. 그는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겸손해졌다. 이로 인해 그는 바벨론에서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왕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유다 왕 여호야킨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지 37년 12월 25일에 바벨론은 에월므로닥이 다스리고 있었다. 에월므로닥은 왕이 된 후에 유다 왕 여호야킨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를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었다. 그는 여호야킨에게 친절히 대했으며, 그의 위치를 바벨론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크게 높여 주었다. 그는 여호야킨의 죄수복을 벗기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그가 먹는 음식은 바벨론 왕의 명예 의해 그가 죽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제공되었다. 이러한 일은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보여준 활약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일은 여호야킨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호야킨의 명예 회복은 장차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정결케 될 유다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예고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을 들어 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반드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겸손해진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에서 명예를 회복하게 된 일 이러한 구원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 바울서신의 통전적 읽기



이상명 박사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총장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1. 성경은 거룩성 회복의 드라마다.

### (1)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회복을 위한 가르침이다.

(a)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 ⇒ 관계적 차원

(b) 하나님 - 선한 목자/샅군 - 양의 관계(요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 10:14-18).

(c)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 (2) 율법(Torah)은 거룩 법전(Holiness Code)이다.

(a)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 11:45).

(b)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본질인 ‘거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c) “자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눅 6:36).

- 거룩 법전(Holiness Code)에서 자비 법전(Mercy Code)으로

(d) 거룩성 회복은 거룩 법전의 목표이지만, 실천은 자비를 통하여.

(e)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8-10).

(f)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g)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성문화된 율법 규정을 실천함으로써?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한 삶을 삶으로써?

- 바울은 이것을 돌판이 아닌 심비에 새겨진 법이라 함.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후 3:3).

(3)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

(a) 바울은 이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 이라 했다. 이 세가지 법은 동일한 법의 다른 표현이다.

바울의 영성은 바로 이러한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회복을 지향하는 영성이다.

-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 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대한 전인격적 동의이고, 몸소 보여주신 인격을 닮아가는 전 과정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 6:2).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롬 3:27).

(b) 이를 위해 바울은 ‘본보기’ / ‘따름(imitation)’ 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 3:10).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살전 1:6).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살후 3:9).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 6:12).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살후 3:7).

(c) 바울의 영성과 신앙교육의 토대: 예수 그리스도 닮음

닮음의 메커니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제자들(12제자와 바울 등)



동역자/교사/부모



성도/학생/자녀(신앙교육)



세상(전도/선교)

(d)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이방(인)의 빛으로 삼기 위함이셨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사 42:6).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행 13:47).

-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빛이 되었는가?

(e)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바울을 선택하셨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 1:15-16).

- 바울의 선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셨다. 이것이 바울 선교의 출발점이다.
-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빛이 되도록 선택하셨으나 그들은 실패하였다. 즉 율법에 근거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

(f) 바울의 선교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 [선교 목적] 죄로 심각하게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  
거룩성 회복은 기록된 법전인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인격대로 살아가는 것
- [선교 방법]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따라(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믿음의 법), 그가 몸소 보여주신 인격을 닮아 자비를 실천하는 것(그리스도의 법)을 현장에서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이 세가지 법은 마음에 새겨진 (기록되지 않은) 법이다.

## 2. 구원 드라마로 바울 서신의 통전적 읽기

### (1) 4막의 구원 드라마

- (a) 1막: 무율법 시대(Torah-free Age): 아담 시대부터 모세의 율법 시대까지
- (b) 2막: 율법 시대(Torah Age): 모세의 율법 시대부터 교회 시대까지
  - 간막(Interlude): 다메섹에서의 그리스도 현현 사건
- (c) 3막: 교회 시대(The Age of the Church)
- (d) 4막: 그리스도의 시대(The Age of Christ): 그리스도의 재림(Parousia)과 함께 펼쳐지는 시대

### (2) 드라마의 구성 요건

- (a) 드라마의 구성 요건
- (b) 플롯(Plot)
- (c) 등장인물(Characters)
- (d) 무대(Stage)

### (3) 1막: 무율법 시대

- (a) 4막으로 구성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첫 막
- (b) 1막: 무율법 시대(아담의 시대부터 모세의 율법 이전 시대까지)
-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롬 5:14)
- 죄와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온 장본인 아담
  -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파괴 = 거룩성 파괴
- (c) 죄와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온 장본인 아담
-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고전 15:21-22).
- 이런 점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반형(anti-type)’
  - 그러나 1막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비결은 있었다.
- (d)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 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갈 3:6-9).
- (e) 아담 ⇔ 그리스도(반형/anti-type)
-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마지막 아담(그리스도)
  - 두 아담(two Adams)은 바울의 구원 드라마를 시작하고 끝맺는 중요한 인물.
  - 첫 번째 아담이 ‘죄’ 와 ‘죽음’ 을 이 땅에 가져온 장본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아담은 ‘죽음(death)’ 으로써 첫 번째 아담이 가져온 ‘죽음(Death)’ 을 극복하고,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도말한 주인공.
  - 거룩성 파괴와 거룩성 회복과 관련.
- (f) 아브라함 ⇒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원형(prototype/antetype)
- 두 인물은 ‘믿음의 법’ 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음(창 15:6; 갈 3:6; 롬 4:3)
  - Justification by faith / Justification through faith by God’ s grace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의 완결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 3:14, 22).
- 1막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주요 등장인물.
-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새롭게 정의: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갈 3:6-9)
-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드라마)에서 1막인 무율법 시대에서 3막인  
교회의 시대로 건너뛰어도 되는데 왜 굳이 2막인 율법 시대가 필요했는가?

#### (4) 2막: 율법 시대

- (a) 율법이 진정한 구원 수단이 된다면 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풀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난제.
- (b) 고린도전서: 참된 지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고전 2:7).
  -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지혜의 본체는  
그리스도시다.
- (c) 고린도후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할 ‘너울’과 같은 옛  
시대의 법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고후 3:13-14).
- (d) 갈라디아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과이다고고스’ (‘몽학선생/초등교사’)  
-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이 율법보다 430년 앞섰다(갈 3:17).

-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모세)의 손으로 베푼 것이다(갈 3:19).
- 율법은 그리스도 오심으로 촉발된 새 시대의 도래로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옛 시대의 구원 수단.
-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 자유인.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그리스도/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진정한 자유를 말한다.

(e) 두 법 사이에서( ‘율법’ 과 ‘믿음/그리스도/성령의 법’ )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롬 3:27).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롬 8:2).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롬 8:6-7).

(f) 두 법 사이에서( ‘율법’ 과 ‘믿음/그리스도/성령의 법’ )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갈 5:16-17).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갈 6:2).

(g) 율법(Torah)의 기능은?

- 죄를 규정한다. 그러나 죄를 극복하게 하는 힘은 없다.
-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성결한 삶을 위해 주어진 율법이 다른 악의 세력인 죄(*hamartia*)와 죽음(*thanatos*)과 벗어나 인간을 억압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전락(율법의 아이로니).
- 율법 - 죄 - 죽음은 결국 인간을 구속하는 트리오(trio)
- 결국 율법은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깨닫게 하여 우리가 구원의 가능성을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게 함. ⇒ 타종교와의 근본적 차이점

- 인류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에 있음을 깨닫게 함.
-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 ( ‘초등교사’ )와 같은 역할을 한다.
- 문자화된 율법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법이 필요하다.  
Torah as Written Code ⇒ The Law of Faith/Christ/the Spirit as Unwritten Code

## (5) 3막: 교회 시대

### (a) 3막 시작

-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으심과 부활로 개막된 3막
- 3막은 그리스도의 재림(Parousia)과 함께 막을 내린다.

### (b) 새로운 우주적 가족(new cosmic family)의 탄생: 한 아들과 많은 자녀(One Son & Many Children)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갈 4:5).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갈 8:14-16).

## (6) 3막(교회 시대)에서 4막(그리스도의 시대)로

### (a) 그리스도의 몸(body)과 지체들(body parts)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롬 12:5).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 따르는 지체들입니다” (고전 12:12, 27).

### (b) ‘보증’ 과 ‘첫 열매’로서의 성령

- ‘보증(guarantee)’ :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후 1:22) /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후 5:5).

- ‘첫 열매(firstfruits)’ :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롬 8:23).

(c) 구원의 과정은 ‘온고잉 프로젝트(ongoing project)’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빌 3: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빌 2:12).

### 3. 바울의 구원 드라마와 선교

#### (1) 선교의 성경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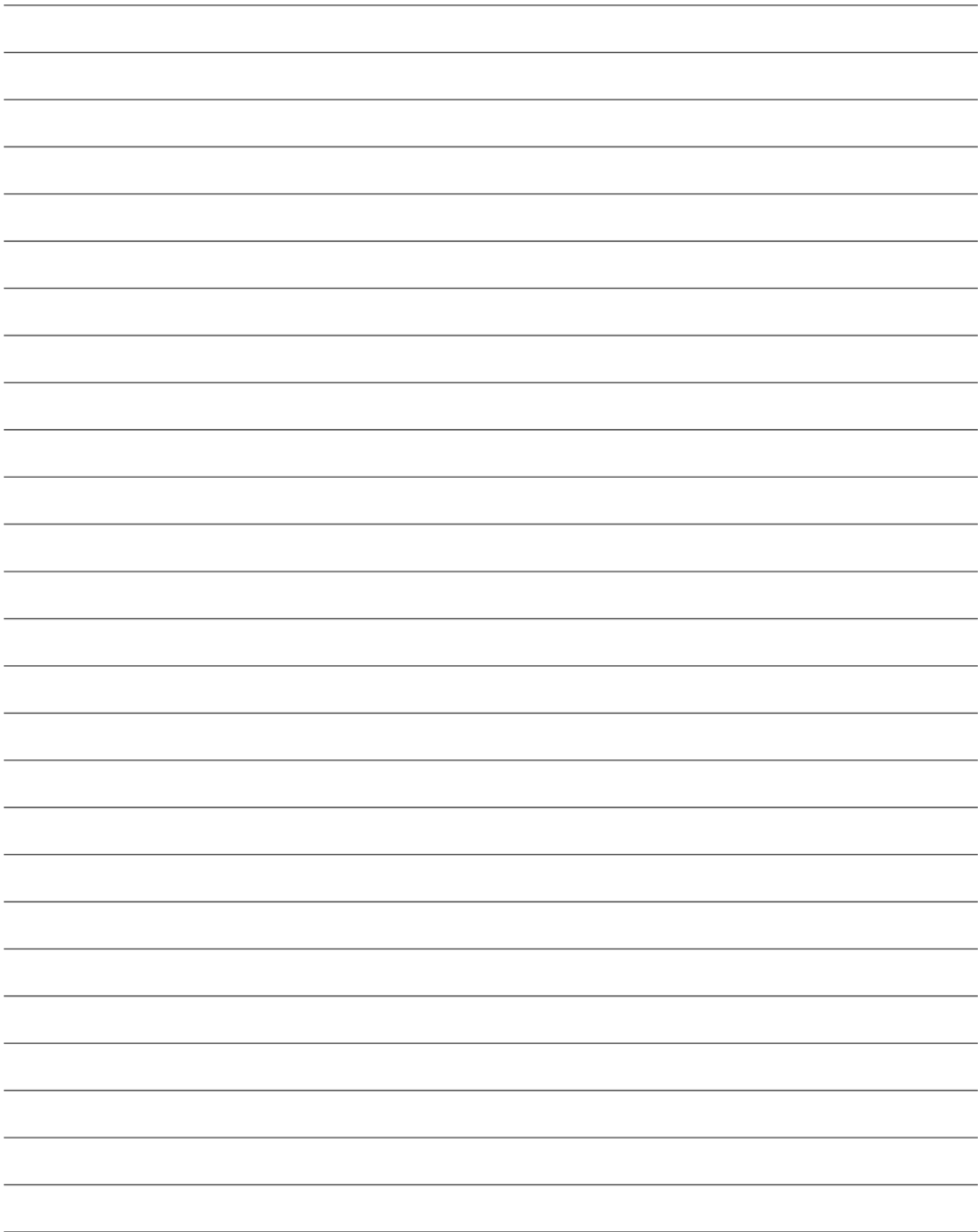
- (a) 선교를 뜻하는 ‘mission’ 은 라틴어 동사 ‘missus’ 에서 파생된 단어로 ‘보내다’ 는 의미.
- (b) ‘보내다’ 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아포스텔로’ 와 같은 개념.
- (c) ‘아포스텔로’ 라는 단어에서 ‘사도’ 를 뜻하는 ‘아포스톨로스’ 라는 단어에서 파생.
- (d) ‘사도’ 란 ‘보냄을 받은 자’ 라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권위를 대변하는 전권 대사의 역할이다.
- (e)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파송받으신 선교사시고 지상 교회를 선교 현장에 보내시는 선교의 주님이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 17:18).

#### (2) 구원 드라마로서의 선교

- (a) 바울의 구원 드라마는 세계를 복음화(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한다. 즉 하나님의 선교가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보여준다.
- (b) 바울서신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과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선교적 실천을 제시한다.
- (c) 바울은 선교를 통해 개척한 교회에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떠났다.

- (d) 바울 선교의 목적은 한마디로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순종케 하기 위해서’고, 이 땅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 (e) 바울의 구원 드라마는 하나님의 선교가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보여준다.
- (f) 바울의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었고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었다.
- (g)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이방세계 속에서 선교지향적 교회였다.
- (h) 바울의 선교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진정한 자기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한 대안공동체였다.
- (i) 바울의 교회는 단순히 선교사를 보내는 기관이 아닌 교회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개념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 Missional Church





# **CABC 2025 섬기는 사람들**

김인희, 김양수, 김혜정, 김민정, 신하라, 안샬리, 박소명, 이현희, 주현국, 전금, 황상원



주관 GMIT(Global Media & IT) / 문의 (310)-702-2688 (샬리 안 선교사)

[www.cabible.org](http://www.cabible.org)

[info@cabible.org](mailto:info@cabible.org)

Facebook @calibibleconference

Instagram @calibible.conference



[www.cabible.org](http://www.cabible.org)

